

Sulwhasoo

VOL.87 SEPTEMBER/OCTOBER 2018

VOL.87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8

Sulwhasoo





옷칠반 / 오토오토
 애시 무늬목, 옷칠 / 2017

옛것으로 여겨지던 옷칠이 젊어지고 있다. 검은 '흑칠'과 붉은 '주칠'이 주를 이루던 옷칠의 색이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뿐만 아니라 금속, 도자기, 한지 등의 다양한 소재와 만나 일상에서의 쓰임새를 찾아가고 있다. 젊은 작가들의 옷칠에 대한 관심과 도전에 힘입어 옷칠은 '전통'이라는 굴레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오토오토'의 옷칠반도 두 젊은 작가들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작업을 통해 옷칠의 가치를 일상에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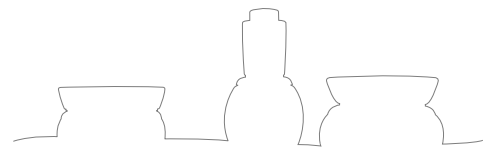
나무에 옷칠을 하면 방수와 방부 기능을 하고 천연 항균 효과도 발휘되어 오래 곁에 두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팔만대장경이 700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옷칠 덕분인 것. 하지만 재료가 워낙 귀하고, 칠하고 말리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므로 일상 용품으로 가까이하기에 작품의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토오토의 김나연, 김아람 작가는 이 점을 안타까워하며 고민과 도전을 이어가던 중 옷칠반을 완성했다. 모나지 않은 둥근 선과 은은하게 비치는 나뭇결이 다정하고 편안하다. 안료를 섞은 정제 옷칠을 여러 번 바르고 닦아내는 '습칠'로 청명하고 고운 색을 입히고,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구성했다. 함께 두면 아름답고 혼자여도 근사하다. 그렇게 옷은 활짝 피어난다. 에디터 박효정 사진 이종근

The traditional process of lacquering is now becoming a trend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 colors of lacquering used to be dark black or red, but it can now use various bright colors and be combined with a number of materials, including wood, metal, porcelain, and Korean paper for diverse uses in everyday life. Thanks to the interests and challenges of young artists toward lacquering, this technique has come alive without being buried in the past as part of tradition. The lacquered tray of 'Ott Ott' brings the value of lacquering to your table through two young artists' devoted minds and work.

With lacquering, wood is protected from moisture and deterioration. It creates a natural antibacterial protection around the material, so you could keep using it for a long time. This is why Palman daejanggyeong("Eighty-Thousand Tripitaka") has preserved for 700 years of time. However, the prices of these lacquered products have become a burden because the materials are hard to find and they require a repeated process of coating and drying. Ott Ott's Na Youn Kim and Aram Kim have undergone a series of contemplation and challenges to complete the lacquered tray. The round contour and the subtle exposure of grains of wood are both warm and comfortable in appearance. The 'wet lacquering' technique, which involves applying refined lacquer mixed with colorants and then wiping it off several times, stains the wood with clear and fine colors. The tray also comes in various shapes and sizes. They are beautiful when placed together, but just as great per piece. The lacquer definitely blooms with Ott Ott.

설화수 헤리티지에 빛나는 인삼의 강인한 에너지
자음생 라인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강화된 인삼 결정체가 피부의 힘을 키워 탄탄하게 깨어나는 피부 활력을
선사합니다. 자음생 라인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실현됩니다.

The new and improved ginseng essence fortifies
the skin's natural regenerating and defense capacities to replenish vitalit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realizes true anti-aging effects.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8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려주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아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8,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Mainland China, Singapore, Hong Kong(China),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Sulwhasoo

VOL.87 SEPTEMBER/OCTOBER 2018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일: 2018년 9월 3일(통권 제87호)
발행인: 안세홍 편집인: 이유동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 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 고객센터(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 박훈성, 민소연 디자인: 조윤희
사진: GURU visual 02)747-6123 시스템 출력: 덕일 인쇄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펼 치 다

- 08
설화지혜
귀하게 다듬어 빛어내는 아름다운 얼굴
- 12
피부 섬기기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탄력을 세우는 인삼의 힘
- 16
新 장인을 만나다
젊은 두 공예가의 건강한 제안
- 22
공간미감
오랜 아름다움, 옹골게 지키고 펼치다
- 28
건너다
설화수와 함께 용솨음치는 생기



누 리 다

- 36
설화인
내 음악의 파트너, 반도네온 뮤지션 고상지
- 44
어우러지다
소중한 이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선물
- 50
설화풍경
바위와 바람과 물과 조각
- 54
설화보감
뿌리 깊은 가을의 맛
- 60
아름다운 기행
전통과 예술이 흐르는 슬로 시티
- 66
설화수를 말하다
아름다움의 절정을 만난 벽찬 감동
- 72
설화공간
플래그십 스토어를 채우는 설화수의 다섯 향기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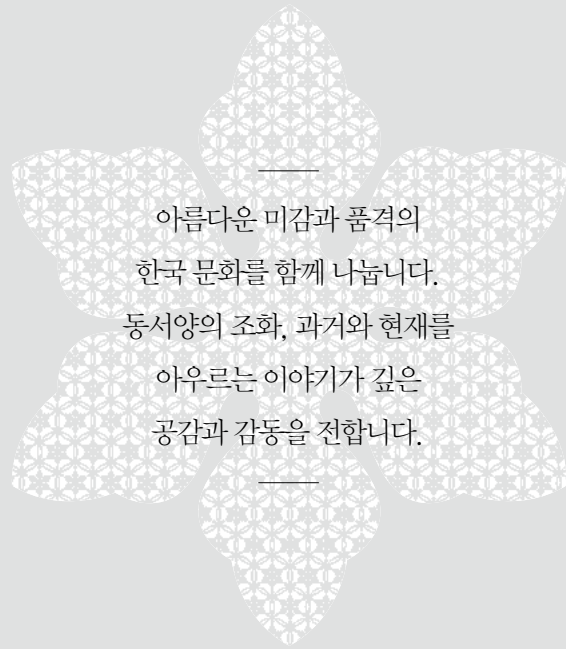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자연의 색을 담은 멋 한 자락
- 82
한국의 멋
건강한 식탁 위 은은한 그 빛
- 84
설화수 스페셜
장인의 손길로 설화수를 담다
헤리티지 장인 컬렉션
- 88
읽다
경주에서 만나는 천년의 사랑
- 92
집 안 단장
벽에 드리운 멋 한 점



- 94
프로덕트 맵
- 97
문화 즐기기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귀하게 다듬어 빚어내는 아름다운 얼굴 Preciously Refined and Molded Beautiful Face

마사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움과 건강을 가꾸는 오랜 방법이였다.
아라비아어로 압박을 뜻하는 'Mass'와 그리스어로 주무른다는 의미의 'Masso'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치료법이라 할 만하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마사지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통증이 있는 곳을 손으로 문지르는 것을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라 한다면, 더욱더 멀어지지 않을까? 치료 수단으로써 체계를 이룬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추정된다. 약 4000년 전의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파라오가 노예에게 다리 마사지를 받는 장면이 기록돼 있으며, 클레오파트라가 발 마사지를 즐겼다는 기록도 있다.

동양 역시 중국 고대 의서 등으로 5000년 전부터 치료로서 마사지가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양의 마사지는 '기(에너지)'가 그 바탕에 있다. 우주의 생명력이라 하는 '기'는 몸의 경혈을 통해 출입하는데 경락이라는 특수한 통로로 몸 안을 순환한다. 이 경락을 지압으로 누르면 막힌 기가 풀리면서 온몸으로 원활하게 흐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에서도 마사지와 관련한 기록이 전해진다. 이 책의 외형편 '면문面門'은 오행 상응을 기본으로 망진望診과 얼굴에 난 각종 질병의 치료법을 다룬다. 환자의 기색으로 병을 진찰하는 망진에서 얼굴은 가장 중요한 부위로, 얼굴의 각 부위는 위치에 따라 오행이 배속된다.

The origin of massage is unknown. Massage was systemized as a tool of therapy probably in Ancient Greek and Roman era. On the Ancient Egyptian murals created around 4,000 years ago, the pharaoh can be seen with his legs being massaged by a slave. Records also showed that Cleopatra enjoyed foot massages.

In Asia, the ancient Chinese medical books stated that massage was performed as a form of therapy 5,000 years ago. In particular, massaging in Asia is based on 'Qi (energy)'. 'Qi,' known as the vitality of the universe, travels and circulates through a special path called the meridians. When you press these meridians, Qi is relieved and it circulates smoothly throughout the body. <Donguibogam> of Korea also has records related to massaging. The chapter of <Facial Doors> in the External Body Part discusses the examination based on the Five Elements Diagnosis and the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on the face. For the examination, the face is the most important part because it shows the patient's complexion, and each part of the face



옥빛 도자기 화병은 박서연 작가. 블랙 프레임의 손거울은 펄리빙 by 짐블랑.
한지로 만든 옛 책 꾸러미는 모두 지희승 작가. 계단 모양의 투명 화병 오브ژه는 펄리빙 by 짐블랑.

또 이 오행은 몸 내부의 오장과 연결되어 몸 안에 병이 있으면 상응하는 얼굴 부위로 나타나게 된다. 얼굴을 문지르는 마사지를 통해 오행의 기를 잘 돌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등장한다.

“손바닥이 따뜻해지게 마주 비벼서 이마 위를 자주 문질러주는 것을 수천정(修天庭)이라 한다. 머리 털이 난 째까지 열네 번에서 스물한 번 정도 해주면 저절로 얼굴에 광택이 생기니 이른바 ‘수의재면(手宜在面)’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오늘의 피부 마사지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데, 스스로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손바닥을 마주 비벼 열을 내는 것은 그 행위로 팔꿈치까지 기운이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다. 얼굴에서 이마는 양기의 집합소로, 따뜻한 손바닥으로 자주 열을 전하고 문질러 흐름을 좋게 하면 더욱 더운 기운이 생겨난다. 얼굴의 광택은 얼굴에 있는 경락의 순환이 잘되고 있음을 뜻한다.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얼굴이 까칠해지고 주름이 생기며 윤기가 사라진다. 허준은 이 마사지가 얼굴빛을 맑게 해주는 효과적인 피부 미용법이라 보았다.

한편 ‘수의재면’이란 ‘손을 마땅히 얼굴에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져주면 몸에 유익하다는 의미다. 얼굴을 문지를 때는 손을 청결하게 하고, 너무 세게 눌러 자극이 되지 않게 한다. 옥이나 호박, 백자 등의 소재로 만든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예부터 순환과 정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옥을 피부에 활용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설화수는 이러한 지혜를 담아낸 백옥 보석 마사저를 선보인다. 귀한 100% 백옥 소재와 설화수의 노하우로 완성된 디자인으로 얼굴부터 목, 바디까지 피부 긴장 및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지친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북돋아 준다. S

represents the Five Elements. The Five Elements are connected to the five internal organs of the body, and the disease in the body appears o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face. The book also tells about how to massage the face in order to circulate Qi of the Five Elements. “Rubbing the palms until warm and then rubbing them on the forehead is called Sucheonjeong. Rub 14 to 21 times up to the hair line and the face will shine. This is known as Suuijaemyeon.” This is also related to the current method of skin massage, but it is interesting because you can do it yourself. Rubbing the palms until warm will spread the energy to the elbows. The forehead is the cluster of Yang energy and it can spread the warm energy if you transfer the heat with warm palms for better circulation. The meridian massage on the face brightens the skin, thus indicating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circulation. Without the smooth circulation of Qi, the face will become rough with more wrinkles. Huh Joon believed that massage is the most effective skincare technique for a clear complexion. ‘Suuijaemyeon’ means that ‘the hand has to be placed on the face’ – in other words, touching the face with your hands is often beneficial. You have to clean your hands before rubbing the face, and it is advisable not to press too hard to cause stimulation. It is also effective to use the massage tools made of jade, amber, and white porcelain. Especially, jade has been the symbol of circulation and purification from old times. With the wisdom of the ancestors, Sulwhasoo presents Luxury White Jade Massager. Its 100% white jade combined with the design completed by Sulwhasoo loosens muscle knots of the body and revitalizes your stressed skin.



그레이 오벌 플랫폼 접시는 제이보울스, 피랑과 녹색의 곡옥, 황옥함과 보라색 가방걸이는 모두 가원공방. 순환과 정화의 상징인 옥을 깎아 만든 마사저로 맑은 피부를 선사하고 입체적인 리프팅 케어와 근육을 풀어주는 백옥 마사저는 설화수(10월 출시 예정)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탄력을 세우는 인삼의 힘 The Unwavering Power of Ginseng for Resilience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없지만 피부 탄력의 힘은 설화수의 인삼 헤리티지로 채울 수 있다.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인삼의 강인한 생명력을 고스란히 피부에 전하는 자음생에센스가 얼굴 전체에 흐트러짐 없는 탄력을 세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르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설화수의 시작에는 인삼이 있었다. 1966년 설화수의 모태인 ABC 인삼크림부터 시작된 인삼 연구는 50여 년을 꾸준히 이어오며 가치 독보적인 결과를 얻었다. 고려시대부터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은 우리 인삼에서 뿌리는 물론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잎과 줄기, 꽃과 열매까지 연구해 범접할 수 없는 설화수만의 기술을 개발한 것. 이러한 설화수의 인삼 헤리티지는 자음생수, 자음생유액, 자음생크림, 자음생마스크, 자음생아이크림, 자음생페이셜오일로 구성된 자음생 라인에 적용되어 영양과 활기를 채워주는 보배로운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뿌리부터 잎, 줄기까지 인삼의 생명력을 듬뿍 채운 자음생에센스가 추가되어 한층 탁월한 안티에이징을 구현할 수 있는 완벽한 라인업을 이룬다. 인삼 잎과 줄기에서 귀한 사포닌을 추출하기 위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설계하고, 정성껏 키운 인삼의 강력한 성분은 시간의 흐름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탄탄하고 촉촉한 피부 탄력을 선사할 것이다.

Ginseng has been around since the creation of Sulwhasoo. The study of ginseng, which began in 1996 with ABC Ginseng Cream, the origin of Sulwhasoo, has continued for over 50 years with unparalleled findings. Sulwhasoo has made a scientific breakthrough by studying not just the ginseng root tha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exceptional efficacies since the Goryeo Dynasty, but also its leaves, stems, flowers, and berries that others have overlooked. Sulwhasoo's ginseng heritage is applied to Concentrated Ginseng Line consisting of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Water,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mulsion,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Mask,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Facial Oil, which are the precious skin products that replenish the skin with nourishment and vitality. The anti-aging line has been perfected with the addition of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which is filled with the vitality of ginseng from the roots to the leaves and stems. The optimum cultivating environment has been designed to extract the rare saponin from the ginseng leaves and stems, while the powerful substances of carefully grown ginseng will complete the firmness and dense resilience of the skin, even in the passage of time.



황동 꽃잎 굽집시는 김서윤 작가.
백자 꽃 접시는 우일요.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의 에너지를 담은 혁신적인 미세 캡슐 진세니스피어™가 차오르는 탄력의 힘을 키워 팍 찬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경험할 수 있다. 50ml

*9월 출시

원형 적동 트레이는 김윤진 작가 by workshop-y. 다각형 대리석 트레이는 김현주 작가.

건물 기둥이 바로 서야 하듯 피부 기둥도 단단하게 서야 탄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피부를 받쳐주는 지지 구조를 촘촘히 세우면 피부 나이의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것이다. 설화수는 이 독특한 역할을 해내는 성분을 인삼의 잎과 줄기에서 찾아내 자음생에센스에 담았다. 진세노사이드 Rd라는 성분이 피부가 노화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피부 구조 단백질을 채워줌으로써 얼굴의 모든 각도에서 탄력이 차오르고 매끈한 얼굴이 완성된다. 이마, 눈가, 팔자주름과 미간, 뺨에 이르기까지 360도 입체 탄력 안티에이징 효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변화를 선사한다. 귀한 성분을 캡슐에 담은 진세니스피어™ 기술도 업그레이드되어 자음생에센스는 더욱 특별하다. 제조 과정에서 열매가 맺히듯 스스로 만들어지는 진세니스피어™는 귀한 인삼씨 오일을 가득 담고 있는 소프트 캡슐 제형으로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고 섬세하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는 촉촉함까지 선사한다.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에센스 이후 단계인 크림을 바르기에 최적화되어 피부를 힘있게 가꿔주는 자음생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 탄력있고 뽕뽕해진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세월의 공격에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탄력을 인삼의 힘을 오롯이 품은 자음생에센스로 채워보자. S

Just as a building needs sturdy columns to become durable, your skin needs firm columns to stay resilient. You can defy your skin's aging process by solidifying the supporting structure between the outer and inner layer of the skin. Sulwhasoo has found an effective substance for that function in ginseng leaves and stems to place int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Ginsenoside Rd replenishes the skin's structural protein, so that the skin plumps up with resilience in every angle and completes a smooth facial contour. The 360° anti-aging effect on the forehead, eye areas, nasolabial folds, glabella, and cheeks creates a breathtaking transformation that will surprise you. The technology of Ginsenisphere™, which encapsulates the precious ingredients, has been upgraded in order to mak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even more special. Ginsenisphere™ is generated as the fruit bears naturally, and it is encapsulated in soft capsules filled with precious ginseng seed oil to absorb smoothly and delicately into the skin, which provides moisturization without the sticky feeling.

With its non-sticky texture, it creates greater synergy with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to keep your skin firmer and more resilient. Enjoy the power of ginseng that does not surrender to the attack of time with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사용법
How to Us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Step 1

아침·저녁 세안 후, 윤조에센스 혹은 자음생수 다음 단계에서 자음생에센스를 양볼, 이마, 턱 순으로 나누어 펴 바르고 수직의 느낌으로 끌어 올리듯 바른다.
After cleansing in the morning and evening, appl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on the cheeks, forehead, and chin and spread the serum in an upward vertical motion.

Step 2

턱에서부터 이마로 힘껏 올려주고, 이마에서 양쪽 턱 끝까지 부드럽게 쓸어준다.
Spread upward from the chin to the forehead and sweep smoothly from the forehead to both chins.

Step 3

목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턱 라인을 따라 귀밑까지 쓸어 올리며 마무리한다.
Sweep from the bottom up the neck and finish by sweeping just below the ears along the chin line.



젊은 두 공예가의 건강한 제안

Kim A Ram & Kim Na Yeon

옷칠 공예가 김아람 & 김나연

한 살 차이인 김나연, 김아람 작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동문수학한 인연을 '동업'의 형태로 이어오고 있다. 옷칠과 대중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옷칠 브랜드 '오토트'를 함께 세워, 창업의 짐을 더불어 지고 있는 것. 공간과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힘듦을 내색하기보다 "공예와 디자인의 적절한 조합을 추구할 것"이란 포부를 당당히 밝히는 둘은 무척 건강하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동업은 쉽지 않은 선택인데, 무엇을 위해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나연) 대학원을 한 학기 먼저 졸업한 제가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의 조언과 조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아람이에게 함께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었죠. (아람) 재학 시절에도 디자인을 비롯한 관심사가 상당 부분 겹쳐서 수락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간을 같이 쓰게 된 게 벌써 3년째네요. 누구나 합리적 가격에 옷칠 공예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둘의 공통된 생각이었고, 그것이 저희 브랜드 '오토트'의 아이덴티티가 되었죠.

브랜드 운영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또 개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지요?

(나연) 서로 외모는 달라도 성격이 유사해서 의견 차로 부딪치는 일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조율이 잘되는 편이라고 할까요? 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더군요.

A cooperative form of business is not an easy decision. What is your purpose and how is the process that you have been working together until today? (Na Youn) I finished graduate school one semester earlier, and I was in desperate need of a partner's advice and support while developing products. Therefore, I asked Aram to work with me. (Aram) I did not hesitate to work with her because we have a lot in common in school regarding our interests, including design. It has already been three years since we shared a space. It was our common belief that anyone should be able to purchase and use lacquer craft items for reasonable prices. It has become the identity of our brand, Ott Ott.

It seemed difficult to operate the brand. Are you also working on an individual work? (Na Youn) Even though we have different

초창기라서 드러나는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함께 고민할 대상일 뿐 걸림돌은 아니죠. (아람) 맞아요. 하지만 개인 작업은 많이 못 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브랜드 작업이 우선이다 보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순 없으니까요. 여건이 허락되면 디테일이 강조된 가구나 식기, 함 같은 걸 만들고 싶긴 해요.

이번 호 표지에 실린 '트레이(Tray)'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람) 일반적으로 옷칠에 대한 기존 인식은 전통 기법을 활용한 '고가의 가구'란 틀에 갇혀 있죠.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옷칠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또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일상 식기를 만들고 싶다는 고민의 결과가 트레이였죠. 한번은 플라마켓에 나간 적이 있는데, 컵이나 그릇보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이 트레이를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였어요.

옷칠이 가능한 제품이 많은데, 왜 트레이였는지 궁금합니다.

(나연) 플라마켓에서 확인한 소비자들의 반응으로 용기를 얻은 상황에서 '2017 공예디자인상품개발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제품화가 가능했어요. 친환경 소재인 옷칠로 만들었기 때문에 컵이나 그릇 받침으로 쓸 수도 있고, 음식을 담아낼 수도 있어 기능적 유연성이 뛰어난 물건입니다. 옷칠을 했으니 방부성과 습기 차단 등은 기본이고요. (아람) 특히 저희 트레이는 나뭇결을 칠로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식기에 적합한 안료와 정제 옷칠을 섞어서 파스텔 톤의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옷칠의 대중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나연) 지금 말씀드린 트레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면 제품의 퀄리티와 함께 가격경쟁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원목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사용이 편리한 무늬목을 소재로 선택했고, 또 다양한 형태를 쉽고 빨리 만들 수 있는 CNC 가공으로 목재를 재단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기물을 일일이 사포질해야 하는 수고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요.

looks, we have a lot in common regarding our personalities. As a result, we really do not have conflicting ideas. We easily come to an agreement under any circumstances. As we spend more time in the same space, we tend to have a broad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 We have difficulties as we are barely starting our business; however, they are not obstacles, but things to ponder together. (Aram) That is correct. We do not have much time for our individual work. Our brand is our priority, so we cannot spare much time for ourselves. If I could, I would like to create furniture, tableware, and chests with a lot of detail.

Could you tell us about the 'Tray on the cover? (Aram) In general, lacquering is confined in the perception that it is an 'expensive furniture' using traditional techniques. We wanted to break that fixed idea and prove that lacquered products can be purchased for a more affordable price, and they can be used in everyday life. Tray was the result of our contemplation to make every day tableware bright and warm. When we saw that consumers preferred the tray to cups or dishes at a flea market, we immediately decided to make a tray.

There are many other products that can be lacquered. Why did you choose a tray? (Na Youn) We were encouraged by the consumer's reactions at the flea market, and we were selected for the 2017 Craft Design Product Development Project to turn it into a product. You can use it to carry cups and dishes as it is mad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lacquering, and it can even serve food as it is functionally versatile. It is lacquered, so it is protected from deterioration and moisture. (Aram) Our tray does not cover the grains of wood with the lacquer, and we mixed colorants suitable for tableware with refined lacquer in order to create bright pastel colors.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effort to make lacquering popular? (Na Youn) We will take the tray as an example. We had to think of product quality and its cost-effectiveness in order to appeal to the consumers. First, we chose patterned wood, which is more affordable and easy to handle, instead of the unsawn timber





친환경 옷칠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원목 대신 무늬목으로 소재를 선택하고, 목재를 규격에 맞춰 재단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옷칠 작업의 퀄리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복되는 칠 작업에는 공을 들여 완성도를 높인다.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나연)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목재나 칠 등의 대량 구입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또 옷칠은 반복적인 칠 작업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작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퀄리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적절한 과정 줄이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작업하긴 하지만, 트레이를 만드는 데 약 10일 정도 걸리니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죠.

오토트 제품만의 장점을 소개해주세요.

(아람) 요즘 테이블 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오토트의 제품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색의 옷칠에 이런 상품도 있구나!'란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제품의 장점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아참 저희 브랜드명은 옷칠의 영문 'Ottchil' 앞 글자를 따온 것임을 밝혀둬야겠네요. (나연) 친숙한 이름 만큼 실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고, 다른 제품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람) 앞으로 더 좋은 제품, 오토트만의 아이덴티티가 구현된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트레이와 함께 쓸 수 있는 식기를 만들어, 오는 11월에 열린 공예 페어에 참가하는 것이 가까운 계획 중 하나입니다. (나연) 소비자들께서 '옷칠 브랜드' 하면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오토트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옷칠의 현대적 감성이 투영된 제품을 생산해야겠죠. S

that is more expensive and hard to handle. Also, we chose CNC machining in order to shape and cut the wood faster; although, we still need to sandpaper each item, of course.

Pricing seems to be the most challenging part of it all. (Na Youn) If it is possible to anticipate the demand, we can lower the unit prices by purchasing wood or lacquer in bulk. However, that is not possible. Furthermore, it requires repeated lacquering process, so the work time will be relatively long. For this reason, we tried to shorten the process as long as there is no quality issue. This is actually the hardest part that we should continue to challenge. (Aram) We work on multiple items at once, but it takes about 10 days to complete a tray. This is definitely not an easy process.

Please tell us what is special about Ott Ott. (Aram)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tableware these days. When they see Ott Ott's products and discover something special about them, they would probably say, "There are actually products with these colors of lacquer!" Our brand name is inspired by the 'ottchil', which is a traditional lacquering technique in Korea. (Na Youn) I think what makes our products special is that they are easy to use in everyday life, and they complement other products as much as the friendly name of our brand.

Please tell us about your future plans. (Aram)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us is to manufacture better products that represent Ott Ott's unique identity. Our nearest plan is to participate in the craft fair that will be held in November with the tray and the tableware that goes with it. (Na Youn) We will do our best to make Ott Ott become a household name when people think of lacquerware. In order to do so, we would have to create products that boast of flawless designs and modern sentiments of lacquering technique.

오랜 아름다움, 올곧게 지키고 펼치다

YÉOL Bukchonga

예 올 북 촌 가

"예로부터 여기 있으며, 올곧게 세우리라."라는 단단한 다짐으로 시작한 예올.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한 북촌 가운데에 있는 예올을 찾았다. 바깥의 떠들썩한 핫살이 무색하게도, 그 안은 차분하고 서늘한 고아함으로 또 다른 세상이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예올 북촌가





변화의 연속에 미쳐 잊고 있었던, 오래된 아름다움을 지켜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예올도 그렇다. 문화재 안내판 사업이나 사적단 복원 정비 등 무너지고 멀어지는 옛것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탤 댔 문화유산 보호 활동으로 시작했다. 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를 보다 잘 알릴 수 있도록,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에 비영리 시민단체를 이끈 예올은 2006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더욱 활발하게 문화재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에 설립 15주년을 맞아 한국 공예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북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국내외에 우리 문화 예술을 알리는 전시와 배움의 터로 제구실을 하는, 아름다운 복합 문화 공간이다.

안국역에서 내려 가회동 방면으로 나와 재동초등학교 쪽으로 주욱 걷는다. 형형색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 여행객이 연이어 지나친다. 눈에 띄는 모든 것에 큰 감탄사를 내뱉기도 한다. 우리의 옛 가옥, 물건, 생활방식이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쁘면서 부끄럽기도 하다. 익숙하다는 핑계로 그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더러 외면하기도 했다는 것이. 예올 북촌가는 1965년에 세워진 오래된 건물이 조병수 건축가의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건축가가 추구하는 한국적인 모더니즘이 예올이 좇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만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있는 아늑한 플랫폼이 됐다. 또한 신사옥 바로 뒤 자리한 오래된 한옥을 새롭게 꾸며 단장한 전시관은 현대적인 감각 안에서도 옛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으려는 예올의 의지처럼 보인다.

예올 북촌가의 1, 2층은 우리 공예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전시관이다. 예올의 기획으로 진행되는

북촌 한옥마을의 초입에 위치한 예올 북촌가는 과거와 오늘을 잇고 아름다운 예술을 공유하는 문화의 장이다. 전시장과 라이브러리, 강의실을 갖추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trying to preserve the traditional beauty that we have forgotten in the continuation of change. Yeol is one of them. They started off with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ivities in order to support the efforts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through the installation of signs for cultural heritage and the restoration of the Sajik Complex.

Yeol is a non-profit civil organization established in 2002 when FIFA World Cup Korea/Japan was there to introduce Korean culture to foreigners. During the celebration of their 15th anniversary in 2017, they found a new shelter in Bukchon, the center of Korean craft. It is a beautiful cultural complex for hosting exhibitions and offering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arts. Yeol Bukchonga has remodeled an old building from 1965 with Architect Byung Soo Cho. The architect's Korean modernist style, coupled with Yeol's Korean traditional beauty, has created a cozy platform that combined the past and the present. Renovated the old Hanok right behind the new building, the exhibition hall seems to reflect Yeol's determination to grab onto the past beauty with modern touches. The first and second floors of Yeol Bukchonga exhibit Korean craft. Also, these halls will host many special exhibitions designed by Yeol and open up the space to various artists. Yeol is looking for the beauty of tradition in craft, which is most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and intuitively symbolizes the esthetics of its time. Yeol Bukchonga, the cen-

전시뿐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의 대관 전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울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공예에서 찾고 있다.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예는 그 시대의 미감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한국 공예의 중심지인 북촌에서 예울 북촌가는 젊은 디자이너와 장인이 협업해 새로움을 짓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젊은 공예인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예울 북촌가의 개관 회고전인 <전통을 묻고 공예로 답하다>에서는 그동안 해온 예울의 다양한 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손끝 야무진 장인의 깊이와 디자이너의 재기 넘치는 창의성이 만나 익숙한 옛 것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어느 유럽 가구보다 심플한 사방탁자, 파스텔 톤으로 빛나는 자개 테이블웨어, 한번 신어보고 싶은 꽃신이 거기 있다. 정갈하고 세련된 한국의 미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만다. 3층은 공예 디자인을 비롯한 다방면의 문화 예술 서적이 구비된 라이브러리이자 여러 강좌와 쿠킹 클래스 등이 열리는 체험 공간이다. 감각적인 디자인의 서적들이 보기 좋게 진열된 창가에는 북촌의 풍경이 내려다보인다. 그와 함께 고운 색을 뽐내는 유리 공예 작품이 어우러진다. 언제든 들려향 좋은 차 한 잔과 함께 창밖의 풍경을 즐기고 아름다운 책도 보고 하는 사랑방. 사랑방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울 북촌가의 3층이 꼭 마음에 들지 않을까.

4층의 사무 공간을 지나 옥상에 오르면, 3층에서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풍경이다. 일자로 죽어 있는 북촌 큰길 너머로 아기자기한 상점과 미술관, 교회 너머로 한옥 지붕의 물결이 넘실댄다. 여러 시간과 공간, 사람이 뒤섞여 만드는 묘한 조화와 고요가 가만히 하늘 아래 펼쳐졌다. 조만간 옥상에 다실을 마련할 예정이라 하니, 바람 시원할 날 다시 찾아 그 풍경을 바라봐도 좋겠다. S

ter of Korean craft, takes the initiative to plan various collaborative projects with young designers and masters in order to create original works and discover young craftsmen in Bukchon.

The retrospective exhibition of Yeol Bukchonga, <Ask Tradition and Answer with Craft>, exhibits Yeol's various attempts. The depth of the skilled masters and the creativity of the designers have come together to revitalize the familiar things from the past. There are coffee tables which are simpler than any European furniture, the tableware with mother-of-pearl shining in a pastel color, and floral shoes that you want to try on at least once. You will come to realize the humble, yet sophisticated, aesthetics of Korea.

On the third floor, there is a library with books about culture and arts, including crafts design, as well as an experience space for various lectures and cooking classes. You could see the view of Bukchon through the window, where uniquely designed books are neatly displayed. Also, the books perfectly come together with the beautiful colors of the glass craft pieces, which create a harmonious scenery.

Once you go up to the rooftop across the office space on the fourth floor, you will encounter a view that is different from what you see on the third floor. Beyond the avenue of Bukchon are the charmingly decorated stores, art museums, and roofs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over the church. The unique harmony and serenity of various time periods, spaces, and people quietly spread beneath the sky. They are going to open a tea room on the rooftop soon, so that you could enjoy the view on a fair and breezy day.

예울 북촌가 가는 길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나온 방향으로 걷는다.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와 가회동 주민센터를 지나 북촌 한옥 마을의 입구 근처, 돈미약국 건너편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50-3
관람 시간 화~토요일 일, 월, 공휴일 휴관
오전 11시~오후 5시
문의 02-745-5878



예울의 전시장에서는 현대 공예가들과 전통 장인이 협업하여 이룬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예울이 기획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예술가가 태어나고 오래전 잊힌 옛 아름다움이 제 빛을 다시 얻는다.

설화수와 함께 용솨음치는 생기 Vitality Soaring with Sulwhasoo

용의 여의주처럼 영롱한 생기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차오른다.
아시아의 지혜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설화수의 활약 덕분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서티스톡



기꺼이 가지고 싶은 타이페이의 보물

'꽃보다 할배'들의 여행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해진 타이페이는 보물찾기의 재미가 있는 곳이다. 단정한 낮과 야시장으로 분야성을 이루는 화려한 밤이 공존하고 골목마다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 덕분에 볼거리가 다채롭다. 스페인, 네덜란드, 청나라, 일본 등의 지배를 받은 복잡한 역사가 타이페이 곳곳에 남아 그들의 정서로 다듬어진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다. 겉치레보다 내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성은 낡은 것을 부수고 새것을 짓기보다 고치고 매만져 사용하게 했다. 외관은 허름해도 안은 특색 있게 잘 꾸며진 카페나 숭 등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진짜 보물은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중국 5000년 역사의 보고이자 60여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으로 유명하다. 중국 내전 때 국민당 장제스 정부가 본토에서 탈출하며 가져온 유물이 너무 많아 3개월에 한 번씩 교체 전시할 정도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도시의 진정한 보물은 맛깔나는 음식들이다. '미식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맛집과 다양한 음식은 타이페이를 몹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진한 육즙을 가득 품은 샤오롱바오를 비롯해 버블 밀크티, 망고 빙수 등 한국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는 음식들의 원조를 맛볼 수 있다. 타이페이 사람들이 물보다 더 많이 마신다는 차는 느긋한 여유를 선물한다.

The treasure of Taipei you deserve to have

Taipei, the city that has come closer to us through the Korean reality-travel show 'Better Late Than Never', offers the fun of treasure hunting. It is calm and relaxed during the day and crowded during the evening with the night markets. Each alleyway has a hidden charm with various things to fill your eyes with delight. Taipei was formerly ruled by Spain, the Netherlands, the Qing Dynasty, and Japan, and its complicated history has left a unique view refined by their native sentiments. The people value what is on the inside more than what is on the outside, so they fixed and renovated the old things, instead of having them replaced with new ones. That is why there are many unique cafés and shops inside the buildings that seem to be of no real worth. The real treasure can be foun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which is one of the world's top five museums. It is known for its collection of over 600,000 artifacts that represent the 5,000 years of Chinese history. Chiang Kai-shek brought so many of these artifacts from Mainland China during the civil war that they have to change the collection every 3 months. Above all, the true treasure of the city is the gastronomic delights. You could 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various restaurants and dishes of Taipei where has become known as 'the heaven of taste'. From Xiao Long Bao filled with the juice of meat to bubble milk tea and mango ice sorbet, you could taste the origin of some of the dishes that are already popular in Korea. Tea, which the people of Taipei prefer to water, delivers the gift of relaxation.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는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타이페이 101 빌딩의 현대적인 모습과 활기 넘치는 야시장에서 넘치는 먹거리,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의 화려함을 동시에 품은 매력적인 도시다.



- 타이베이 신광 미츠코시 티엔무
Taipei Shin Kong Mitsukoshi Tienmu Store
- 타이베이 신광 미츠코시 난시
Taipei Shin Kong Mitsukoshi Nanxi Store
- 타이베이 퍼시픽 소고 백화점
Taipei Pacific SOGO Whongxiao Store
- 타이베이 통일시대 광장
Taipei Uni-Usstyle Taipei Store
- 타이베이 신광 미츠코시 A8
Taipei Shin Kong Mitsukoshi Taipei Xinyi Place A8
- 타이베이 메가시티
Taipei Mega City



타이베이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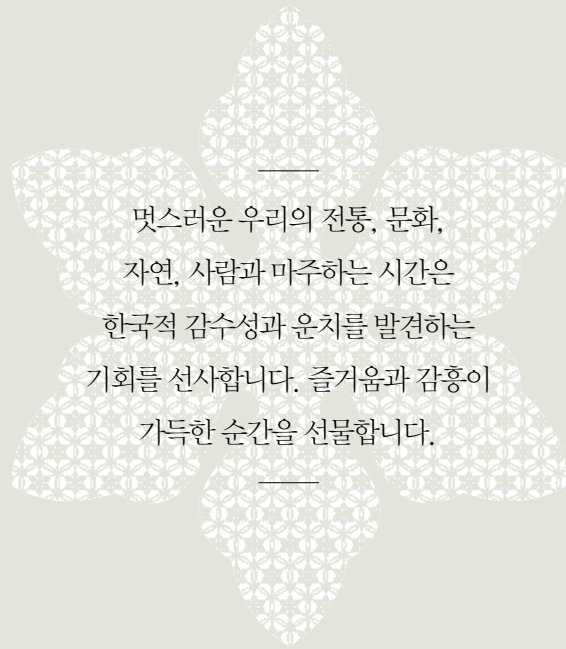
설화수의 조화와 균형으로 생기를 채우다

설화수가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처음으로 홀리스틱 뷰티의 지혜를 선보인 지 6년 만에 여섯 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다. 타이베이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연평균 230퍼센트의 성장을 이룬 설화수가 지난 6월 '통일시대 광장'에 선보인 이번 매장은 보다 특별하다. 고객들이 설화수를 친숙하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터미널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유동 고객이 많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외부에서 매장 안이 잘 보이도록 'See-through wall'을 적용했다. 설화수의 50년 인삼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음생 라인을 소개하는 VMD를 필두로 브랜드 가치를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것도 고객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다. 설화수만의 깊이 있는 카운슬링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간단한 페이스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간 구성은 설화수의 지혜와 매력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조화와 균형을 이뤄 생기 넘치는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데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설화수의 진심이 보석같이 빛난다. S

타이베이의 통일시대 광장에 문을 연 여섯 번째 설화수 매장은 고객들이 설화수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매장 안이 잘 보이는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편안하고 깊이 있는 카운슬링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을 마련했다.

Vitality filled with Sulwhasoo's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 has opened its sixth store in six years since the wisdom of holistic beauty was first introduced to Taipei, the capital of Taiwan. Sulwhasoo has achieved an average of 230% of growth a year in Taipei as a global luxury brand; however, the new store that was opened at the Baihua Square last June is even more special. Customers could enjoy Sulwhasoo in a more comfortable and friendlier setting. Since it is located at a busy place connected to a bus terminal and a department store, and encased in see-through walls, it is easy to see from the outside. VMD of Concentrated Ginseng Line introduces Sulwhasoo's 50 years of ginseng technology, and makes it easier for customers to comprehend the brand value in an effort to become closer to them. The private space for Sulwhasoo's signature personal counseling and simple facial treatment programs are the best place to experience Sulwhasoo's wisdom and charm. The sincerity of Sulwhasoo to guide everyone to a beauty that is full of life through harmony and balance shines like a gemstone.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구
리
다 

내 음악의 파트너, 반도네온
Bandoneon, The Partner of My Music

Koh Sang Ji

뮤 지 셴 고 상 지

고상지를 반도네온 연주자라고만 부르기엔 아쉬운 점이 많다.
반도네온은 고상지를 떠올리기에 안성맞춤이긴 하지만 고상지의 음악은
반도네온만으로 설명하기에 좀 더 광범위하다. 현재 고상지의 반도네온은 고상지라는 뮤지션이
경계를 허물기 위해 사용하는 악기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정규 앨범 <Tears of Pitou>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반도네온으로 풀어놓았다.

글 이재영 사진 전재호





바로크에 빠진 탱고

고상지가 작곡하고 편곡한 앨범 속 반도네온은 항구의 악기다운 자유로움을 마음껏 펼친다. 공연을 기획하고 작곡하고 편곡하고 이런 음악 작업들의 기반에 반도네온이 있다. 반도네온으로 뮤지션 고상지의 범주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무대에 서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전에는 녹음하는 게 더 편안했거든요. 무대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녹음은 고요하고 정교하게 나의 것을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무대가 재밌어요.” 요즘 고상지는 공연 콘텐츠를 직접 기획한다. 악기 연주뿐 아니라 스스로 연주를 하는데, 그 과정이 본인에게 많은 에너지를 준다고 한다. 대부분의 악기가 그렇지만 반도네온을 연주한다는 건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몸을 단련하는 과정과 같다. 한 번의 공연을 위해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고상지는 공연을 앞두고 하루 대여섯 시간, 평균 매일 세 시간씩 연습한다. 육상선수가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뛰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 바로크 음악에 빠져서 공부하느라 연습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음악 공부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거든요. 바로크 음악에 빠지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제 음악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광팬이었죠. 모든 상황에 꼭 맞게 나오는 음악들이 정말 좋았어요. 탱고에 빠지게 된 것도 <드래곤 퀘스트>의 음악이

Tango Fascinated by Baroque

The bandoneon in the album composed and rearranged by Sang Ji Goh boasts of its freedom as the musical instrument of the harbor. It is the foundation of Musician Sang Ji Goh's musical activities to direct concerts, compose and rearrange music. She is widening her realm with the bandoneon.

“I have come to enjoy standing on the stage. I used to feel more comfortable when recording music before. On the stage I always felt nervous, while I was able to express my music calmly and delicately on recording. However, it is fun to perform on the stage these days.”

In recent days, Sang Ji Goh plans the performances by herself. She directs the stages in addition to performing the instrument, and she says that this process brings a lot of energy to herself. Like most other musical instruments, performing the bandoneon is like constantly training yourself as an athlete. You should not miss a day of practice for a single performance. Goh practices up to six hours a day before a concert, or three hours a day on average, just like an athlete who runs every day not to lose his or her touch. Nevertheless, she is running out of time these days because she has fallen in love with Baroque music.

“Learning music is never tedious. You always discover something new. I fell in love with Baroque music accidentally. My music was strongly influenced by Japanese animation. I have been an enthusiastic fan since I was young. It was so great to hear the right music at the right time. I got into Tango because it reminded me of the music in <Dragon Quest>. My last album was homage to my favorite animation characters. All of the music directors I admire are the directors

연상되어서였어요. 지난번 앨범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에게 헌정하는 음악을 만들어 구성했을 정도죠. 존경하는 음악 감독들도 다 애니메이션 감독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한 거죠.”

우연히 바흐의 바이올린 더블 콘체르토를 듣고 있었다. 바흐의 음악에서 문득 피아졸라가 즐겨 쓰던 멜로디 라인을 발견했다. 피아졸라의 원천이 바흐였다니 흥미로웠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로크 음악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존경하던 음악 감독님들의 음악이 바로크 음악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더군요. 이제야 발견한 거죠. 대중음악가였고 기본적인 음악 공부는 했지만 클래식에 크게 집중하지 않았는데, 클래식을 그중에서도 기본 화성이 되는 바로크 음악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넓어질 고상지의 음악

자신이 황홀하게 들던 음악의 원류가 바로크 음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고상지는 바로크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바흐에서 텔레만, 비발디까지 그 시대 음악가들의 음악이 얼마나 모던할 수 있는지 공부하면 할수록 감탄의 연속이라고.

“작곡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고, 또 편곡의 경우도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건 탱고 리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라인이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찾았는데 그

of animations, but I have discovered something new and amazing.”

She was listening to Bach's Double Violin Concerto. She happened to discover the melody line, which Piazzolla liked using in Bach's music. It was interesting to discover that Bach was the origin of Piazzolla's music. That is why she started concentrating on Baroque music.

“As I was listening to Baroque music, I was amazed to find out that the music of whom I admire has been enormously influenced by Baroque music. I was not aware of it all this time. I was a pop musician and I studied the fundamentals of music, but I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classical music. Therefore, I have determined to study Baroque music deeper which is the basic chord in classical music.

The Ever Widening Music of Sang Ji Goh

Since she found out that the Baroque was the origin of music that fascinated her, Goh has decided to study Baroque music. She was astonished to see the modernity in the music of Bach, Teleman, and even Vivaldi.

“I fell into mannerism while composing and I felt that I tend to repeat similar melodies for rearrangement, as I was always asked to create a melody based on the Tango rhythm. I was looking for something new and I found it in something old. I believe that my music will expand as I go deeper into the fundamentals.”





게 오래된 어딘가에 있었던 거죠. 기분을 깊이 파고들면 내 음악이 넓어질 거라 믿어요.”
고상지는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모른 척하지 않는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클래식 문을 이제야 연 것이, 이런 것도 모르고 곡을 썼던 것들이 부끄러워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앞으로 고상지의 음악이 더욱 기대된다니, 웃으며 말했다.

“저도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기대되고 흥미로워요. 피아니스트 최문석, 이현진, 바이올리니스트 윤종수, 강이채, 비브라포니스트 마더 바이브 같은 친구들. 존경스러운 음악 동료들과 함께하는데 아마 갈수록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음악 세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어느 인터뷰에서 고상지가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마침’이 여러 번 반복됐다고. 대학에 가니 마침 밴드가 있었고, 마침 엄마가 아르헨티나에서 반도네온을 사다 줬고, 누군가 마침 세계적 반도네오니스트 고마즈 료타에게 메일을 보냈고, 마침 그가 허락했고, 연주자가 없어 김동률 콘서트 무대에 섰고, 마침 <무한도전>에 출연했다.

‘마침’이 마치 행운의 꼬리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마침과 마침은 반도네온의 주름처럼 연결되어 있다. 마침과 마침 사이, 주름과 주름 사이 공기를 집어넣듯 고상지는 수많은 도전과 실행과 노력을 거듭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도네온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마침’을 거듭하는 고상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S

Goh has described her past story as ‘embarrassing’. It was impressive to see that she has admitted her embarrassment. The reason of her embarrassment was that she has just opened the door of classical music and composed music without studying any classical music. This is why she has to study hard, she said. When I said that I would look forward to her music, she replied with a smile: “I can’t wait either and it will be very interesting. I am working with the fellow musicians whom I admire, including pianists Moon Suk Choi and Hyun Jin Lee, violinists Jong Soo Yoon and Yi Chae Kang, and vibraphonist Mother Vibe. I am quite sure that we will create greater synergies as we go on. We respect and rely on one another to consolidate our world of music.”

Goh once said at an interview that she has had a series of coincidences ‘at just the right time’. There was a band when she went to college, and her mother got her a bandoneon from Argentina at just the right time. Someone e-mailed Komatsu Ryota, a world-class bandoneonist, and he accepted at just the right time. She performed for Dong Ryul Kim’s concert at just the right time because there was no other performer. She also appeared on <Infinite Challenge> at just the right time. All these coincidences seem like tags of good luck, but they are interconnected like the folds of the bandoneon. Goh was challenged and tried countless times between the coincidences as if she was injecting air into the wrinkles. You will be able to see her capture much more coincidences with the bandoneon by her side as a partner.

헤어&메이크업 조원경(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모드곤(070-8241-0596), 어헤이트 for 하고(1670-3212), CH캐롤리나헤라(02-540-0733), 딘트(1600-3178), 스톤렌지(02-2281-1484), 블랙뮤즈(02-545-3127), 레이첼룩스(02-6215-0070)

소중한 이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선물

황금빛 풍요가 땅을 채우고, 꽃과 나무는 그윽한 향내를 발하며, 드높은 하늘과 청명한 바람이 감도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 가을의 풍성함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추석 선물을 설화수와 함께 준비해보자. 설화수의 가을도 넉넉하기 그지없어 선물을 고르고 전하는 마음 또한 지극하고 아름답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는 장인의 선물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의 전통 십장생 문양이 국가무형문화재 입사장 홍정실 장인의 손길로 실란 콤팩트, 실란 컬러팩트, 퍼펙팅쿠션 인텐스에 새겨졌다. 전통 입사 기법인 금실박이를 세밀한 금속 공예로 구현한 열여섯 번째 실란 컬렉션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이 유물로 머물지 않도록 지금의 우리에게 이어주는 설화수의 진심 어린 선물이다. 실란 콤팩트와 실란 컬러팩트는 귀한 원료를 담아 얼굴에 빛과 생기를 부여하고, 퍼펙팅쿠션 인텐스는 탄탄하고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선사한다. 여기에 섬세한 입사 작품까지 더해져 선물의 격을 높인다.

한지 사각 소반은 정대훈 작가. 골드 도토리 오브ژه는 펄리빙 by 짐블랑. 꽃 모양의 옷칠 볼은 박수이 작가.
고사리 패턴의 한지 선물 포장은 지희승 작가.



영롱한 빛, 품격 있는 기색

우아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은 피부의 빛 기색에 따라 결정된다. 예로부터 윤기 있고 건강한 안색은 복을 부르는 좋은 관상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차원이 다른 빛과 윤기를 에빛크림이 채워준다. 열을 낮추는 식물인 황금 성분이 밝은 빛을, 금은화 성분이 촉촉한 피부 결을, 살구씨 오일이 건강한 윤기를 부여해 이상적이고 기품 넘치는 얼굴빛을 완성한다. 1겹에 광채가 빛나고, 2겹에 피부 결을 매우며, 3겹에 윤기가 더해져 바르는 수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튜브형 에빛크림을 파우치에 휴대하여 미간과 눈 밑, 팔자 라인 등 건조해지기 쉬운 6사자 존에 덧바르면 하루 종일 촉촉하고 품격 있는 기색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보라색, 밤색 옷철반 트레이는 모두 오트오트, 황동 중지 그릇은 아원공방. 나뭇잎 모양의 옷철 접시는 박수이 작가. 사각 문양 조각보는 아원미 작가 by KCDF갤러리숍. 꽃 모양의 한지 옷철 마그넷은 정대훈 작가.



향으로 품은 한국의 사계절

한국 자연의 아름다운 사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설화수 궁중비누는 특별한 선물의 가치를 지녔다. 매화, 살구, 소나무, 홍삼의 깊은 한방 향으로 마음과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전통 수제비누 공법으로 귀한 한방 원료를 40일 동안 숙성해 청아하고 매끄러운 피부 결로 가꿔준다.

골드 반침의 원형 소반은 이지훈 작가 by KCDF갤러리숍. 대나무 사각 바구니는 DPA by KCDF갤러리숍. 초록색 보자기 선물 포장과 연보라색 실크 보자기는 모두 호호당.



입술에 피어난 붉은 가을

앵두같이 빨갛고 매끄러운 입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오랜 로망이다. 풍부한 영양과 보습으로 촉촉하고 윤기 있는 입술로 가꿔주는 설화수의 에센셜 립마스크와 차분한 가을 컬러로 새롭게 선보이는 에센셜 립세럼 스틱이 입술에 대한 로망을 완벽하게 이뤄준다. 에센셜 립마스크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모이스처(핑크 용기)'와 상처를 완화하고 진정시키는 '리커버리(그린 용기)' 두 가지로 구성되어 각질 없는 건강한 입술을 선사한다. 에센셜 립세럼 스틱의 새로운 컬러인 '59호 어텀 레드'와 '38호 서틀 핑크'는 세련된 가을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실크 스카프는 강은영 작가 by KCDF갤러리숍, 분홍색 도자기 함은 에리어플러스, 다각형 우드 트레이는 김현주스튜디오, 국화꽃 머리꽃이는 가원공방, 연보라색 원형 꽃칠 트레이는 박수이 작가.



금빛으로 찬란한 마음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설화수의 문화 메세나 활동인 <설화문화전>은 가을의 풍성한 선물 같은 전시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설화문화전>의 주제는 'Fortune Land: 금박전'으로 한국 전통의 '금박'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 그래픽 디자인, 패션 등 현재 작가들이 다양하게 변주한 작품이 함께 펼쳐진다. <설화문화전>을 기념하기 위해 금박 모티프로 디자인된 파우치와 함께 윤조에센스와 퍼펙팅쿠션이 각각 구성된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키트 제품이 선보인다. 판매 수익금은 한국의 무형문화재 지원에 쓰여 가치를 더한다.

백자 달 항아리와 호박 모양 함은 모두 광주요 제품.



바위와 바람과 물과 조각

미시령을 넘어 동해 바다에 닿기 전 설악산의 바위를 닮은 미술관이 숨겨져 있다. 바위의 강원도 말인 '바우'와 뮤지엄이 합쳐진 바우지움 조각미술관은 애초부터 그 자리에 있던 바위를 그대로 두어 땅의 역사를 감싸 안았다. 건물 사이를 담장으로 이어 바람길을 마련하고, 낮에는 산과 하늘이, 밤에는 달과 별이 담기는 수면은 화폭과 다름없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장소 협조 바우지움 조각미술관

존재의 조각들이 찬연하다

우리의 삶은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과 같다. 평범한 조각의 순간들이 모이면 보석처럼 빛나는 특별한 시간이 된다. 설악산을 병풍처럼 거느린 바우지움 조각미술관은 사색의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울산바위의 돌을 떼어내 펼쳐놓은 듯한 물정원에서는 상념을 고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닮은 듯 제각각 다른 조각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강박이 미명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단단하게 채우는 피부 본래의 힘

남성의 피부가 여성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가? 남성 피부 세포는 외부 자극에 민감해 수분 손실이 높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 설화수는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고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본윤유액과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길러 노화를 근본부터 관리하는 본윤에센스를 통해 남성의 피부를 유쾌하게 다스린다. 다섯 가지 한방 성분을 복합 처방한 '정양단'과 인삼, 맥문동 추출물이 피부 활력을 부여하는 본윤에센스와 '비타민 나무'로 불리는 산자나무의 추출 성분이 피부 손상을 진정시키는 본윤유액은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남성 피부의 힘을 단단하게 채워준다. 설화수 맨 본윤유액 90ml 5만2000원대,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 140ml 7만3000원대



태양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

피부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야 하는데 남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끈적이고 답답한 느낌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불편했다면 설화수 맨 릴랙싱 UV 프로텍터가 이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준다. 끈적이지 않고 고르게 도포돼 자외선을 차단하는 강력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한다.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마치현 추출물이 피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섯 가지 한방 성분이 담긴 '정양단'이 피부 자생력을 강화해준다. 부드럽게 밀착되고 가볍게 스미는 오리엔탈 우디 향은 편안한 기분까지 선사한다. 설화수 맨 릴랙싱 UV 프로텍터 SPF 50+/ PA+++ 50ml 4만원대



뿌리 깊은 가을의 맛

땅속의 기운을 듬뿍 받아 영양도 가득 머금은 뿌리채소는 보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뿌리채소의 풍부한 미네랄과 섬유질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젊음을 선사한다. 가을의 뿌리채소 덕분에 건강이 옹골차게 뿌리내린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스타일링 김보선(로썬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전윤정



산뜻하고 든든한 비트 흑미 샐러드



재료

비트 피클 200g, 흑미 1컵, 소금 약간 (드레싱) 올리브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다진 양파 4큰술, 다진 파슬리 1/2큰술 (비트 피클) 비트 300g, 물·식초 1컵씩, 설탕 2/3컵, 소금 3큰술

만드는 법

1 비트는 껍질을 벗기고 한 입 크기로 납작하게 썬다. 2 냄비에 피클 재료인 물과 식초, 설탕, 소금을 넣고 한소끔 끓인 뒤 불을 끄고 비트를 넣어 식힌다. 완전히 식으면 열소독한 유리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3 끓는 물에 흑미와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20~25분간 익힌 뒤 체로 건져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뺀다. 4 볼에 비트와 흑미를 담고, 분량의 재료로 만든 드레싱을 넣어 가볍게 버무린다.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연근 수프



재료

연근 200g, 쌀밥 2큰술, 우유 1½컵, 닭 육수 2컵, 튀긴 연근 칩·잣·호두·소금 약간씩

만드는 법

1 연근은 한 입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데친다. 2 믹서에 데친 연근과 밥, 우유를 넣고 곱게 간다.
3 냄비에 ②를 넣고 닭 육수를 부어 주걱으로 저어가며 걸쭉하게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한다.
4 볼에 ③을 담고, 튀긴 연근 칩과 잣, 호두를 올려 낸다.

향긋한 버터와 마늘을 입은

당근 구이

재료

미니 당근 10뿌리, 버터 3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미니 당근을 깨끗하게 씻어 굵은 것은 반으로 썰어둔다. 2 버터는 전자레인지에서 15초 정도 돌려 녹인다. 3 볼에 녹인 버터와 다진 마늘을 넣고 섞은 뒤, 당근을 넣어 가볍게 섞는다.
4 오븐 팬에 종이호일을 깔고 ②의 당근을 넓게 편 다음 소금을 뿌린다. 180℃로 예열된 오븐에서 25분 동안 굽는다.



사각사각 기분 좋은 식감

마 명란무침

재료

마 200g, 명란젓 2덩이, 쪽파 1대, 참기름 2큰술

만드는 법

1 마는 껍질을 벗겨 한 입 크기로 썬다. 이때 채소 필러를 쓰면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다.

2 명란젓은 껍질을 벗겨 속만 남기고, 쪽파는 송송 썬다. 3 볼에 손질한 마와 명란젓,

참기름을 넣고 가볍게 무쳐 그릇에 담은 뒤 쪽파를 올려 낸다.



쌉싸래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새싹삼 새우 냉채



재료

새싹삼 20뿌리, 냉동 손질 새우 1컵, 오이·사과 1/2개씩 (소스) 잣 1/2컵, 식초 3큰술, 겨자·설탕 2큰술씩, 매실청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만드는 법

1 새싹삼은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5cm 길이로 썬다. 2 냉동 손질 새우는 물에 담가 해동한 뒤 끓는 물에 데친 후, 한 김 식힌다. 3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어슷하게 썰고, 사과는 한 입 크기로 납작하게 썬다. 4 믹서에 분량의 소스 재료를 넣고 곱게 간다. 5 볼에 새싹삼, 오이, 사과, 잣 소스를 함께 넣고 가볍게 버무린다.



전통과 예술이 흐르는 슬로 시티

Kanazawa & Lagos

가나자와 & 라구스

옛 모습이 오롯이 남은 오래된 도시들에선 유난히도 - 과거는 물론 지금의 - 예술이 번성하는 것 같다.
공간에 차곡차곡 쌓인 인간의 힘일까? 시간과 예술에 취해 발걸음도 느릿해진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서티스톡



한때는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을 정도로 번성했던 가나자와는 도시화의 광풍에서 살짝 벗어나 옛 흔적을 잘 지켜내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물, 격조 높은 문화가 어우러져 일본 특유의 서정적인 풍경을 만든다.

가나자와는 일본 혼슈의 중앙부에 자리 잡은 도시다. 근대 이후 이곳은 공업 발달에 뒤처져 대도시에서 거점도시로 물러섰다. 하지만 전란이나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시내 곳곳 역사 깊은 공간이 살아남았고, 현대화라는 태풍이 비껴간 고유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 특히 16세기에 세워진 가나자와 성과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라는 겐로쿠엔은 아침 산책길로도 그만이다. 가나자와 성 건너에는 21세기 현대미술관이 말 그대로 모던하게 서 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당연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비단 풍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500여 년 동안 공들여온 정성에도 깃들여 있다. 16세기 마에다가(家) 이후 가나자와는 풍부한 쌀 수확으로 얻은 재력을 문화와 학문, 예술 장려에 힘썼다. 그 결과 금박, 가가 유젠(염색) 등의 전통 공예와 다도, 노가쿠 등의 전통문화, 화과자와 카가 요리 등의 음식 문화가 격조 높게 꽃피웠다.

이러한 문화 예술은 계속 전승되어 지금의 가나자와를 더욱 특별하게 한다. 가나자와의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예술가, 공예인, 셰프들은 과거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쌓아간다. 과거를 사랑하되 거기에 머무르지만은 않는다. 창의적인 태도로 옛것과 사이 좋게 협업하여 또 다른 가나자와를 만들고 있다.

Kanazawa is a city located in the center of Honshu, Japan. Since the modern times, this place fell behi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became a hub city. However, it was able to preserve many historical places as it was not affected by the storm of modernization, such as wars and natural disasters. Kanazawa Castle, built in the 16th century, and Kenrokuen, one of the three gardens of Japan, are the great courses for a morning walk. Across from the Kanazawa Castle is the modern structure of the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Here, old and new things coexist in peace, which provides the picturesque scenery.

However, beauty of this place is not just found in the scenery, but also in the whole-hearted devotion of the people for the last 500 years. Since the Maeda Era in the 16th century, Kanazawa invested its wealth from rice farming in culture, philosophy, and art. As a result, various traditional crafts (e.g., gold plating and Gaga Yujen [dyeing]), traditional culture (e.g., teism and Nogaku), and culinary arts (e.g., flower cakes and Kaga dishes) have flourished. Its culture and arts succeeded in making Kanazawa even more special today. The young artists, masters, and chefs living in Kanazawa at this time are building a new history based on the firm foundation of the past.



포르투갈 알가르베 지방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라구스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대항해 시대 교역의 중심지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곳은 이제 시간이 멈춘 듯한 슬로 시티다.

라구스는 포르투갈 최남단 알가르베 지역에 위치한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다. 14세기에 세워진 유서 깊은 이곳은 포르투갈이 해양 왕국으로 활약하던 시절 중요한 거점이었다.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해변은 유럽인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로 손꼽을 만큼 아름답다. 라구스 구시가지는 그 극적인 풍광과 역사 깊은 유적들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지금의 삶들과 함께 어우러진다. 낮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는 반나절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아담하다. 구불구불 복잡한 골목길에도 시간의 흔적이 뚜렷하다. 골목길들은 까몽이스, 길 아네스, 안판테 등 세 개의 광장으로 이어진다.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안판테 광장 중심으로 다양한 식당과 상점가가 조성되었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두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예술 또한 도시 곳곳에서 빛난다. 시립 박물관의 진귀한 교회 보물과 수공예품, 성 안토니오 성당의 정밀한 바로크식 목조 작품은 경탄을 자아낸다. 라구스의 노천카페에 앉아 길거리 가수의 애절하고도 절절한 포르투갈의 옛 노래를 들으며, 또는 거친 파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월 동안 감내해온 해안 절벽을 바라보며, 시간과 나 자신 사이의 의미를 짚어본다. 답은 느릿느릿 내도 좋겠다. S



Lagos is a small city with a population of around 30,000 people in Algarve, the southernmost part of Portugal. Built in the 14th century, this historical place was a major strategic point when Portugal was an oceanic empire. The beach preserves the primitive environment so beautifully that it is one of the most beloved vacation destinations among the Europeans. The old town of Lagos combines the dramatic views and historical heritages with its various colors of today's life. Encased by low and thick walls of the castle, the old town is small enough to explore only in half a day. The winding alleyways, which also clearly reflect the traces of time, lead to one of three squares – Camoes, Avenue Agnes, and Infante. There are many unique restaurants and shops around Infante, which is always crowded with visitors, and the two smaller squares offer friendly shelters for the local people. Art also shines across the city. You will be astonished by the treasures of church and handicrafts in municipal museum, as well as the precise Baroque wooden structures of St. Antonio Cathedral. By sitting at a streetside café in Lagos to listen to the bittersweet and husky voices from street singers singing the old Portuguese songs, or look out the coastal cliffs that have endured the heavy seas, you will have a relaxed time to look back on yourself.

아름다움의 절정을 만난 벽찬 감동

피부의 젊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을 설화수는 인삼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스린다.
인삼에 대한 고집스러운 연구와 원칙이 빚어낸 50년 인삼 헤리티지는 자음생 라인을 통해 가장 황홀한 안티에이징을 선사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적동에 칠보를 입힌 볼과 컵, 트레이는
모두 김윤진 작가 by workshop-y.

자음생 에센스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인삼의 잎과 줄기, 뿌리까지 인삼 전체의 효능을 고스란히 담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피부 탄력을 촘촘하게 세워주는 안티에이징 에센스다. 피부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하는 진세노사이드 Rd가 이마, 눈가, 팔자주름, 미간, 뺨 등 얼굴의 모든 각도의 탄력을 견고하게 채워 노화에 흐트러지지 않는 또렷한 피부 바탕을 완성한다.
How to Use 아침 저녁 기초 손질 후 적당량을 손바닥에 펴핑하여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바른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시킨다.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 라이트)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Light

강력한 인삼의 안티에이징 에너지를 담아 피부 활력을 깨워주는 자음생크림은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꽃의 귀한 성분을 담았다. 세계가 인정한 독보적인 인삼 안티에이징 원료인 뿌리 속 Compound K를 설화수의 인삼 헤리티지 대표 기술인 바이오컨버전 기술™로 가공해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꽃에서 찾아낸 안티에이징 진세노사이드 Re로 피부를 지키는 힘까지 더했다. 선호하는 제형과 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과 라이트로 구성된다. **How to Use** 아침, 저녁 크림 단계에서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바른다.



금속과 컬러 레진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한 촛대는
 모두 김유정 작가.

황동과 적동에 칠보를 입힌
 화병과 컵, 트레이는 모두
 김윤진 작가 by workshop-y.



자음생 마스크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y Mask

설화수를 대표하는 안티에이징 크림인 자음생크림의 핵심 성분을 담은 자음생마스크는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 탄력과 윤기 투명도 등을 끌어올린다. 이는 이중 구조 더블 레핑 시트™의 혁신적인 기술 덕분인데 두 가지 서로 다른 재질의 시트를 적용해 안으로는 편안하게 밀착되어 인삼 성분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밖으로는 피부를 꼼꼼하게 감싸 텍스처의 피부 흡수를 돕는다. 풍부하고 크리미한 텍스처는 강력한 인삼 에너지를 촘촘히 집중적으로 전해 탄탄한 피부 탄력과 우아하게 빛나는 윤기를 선사한다. **How to Use** 먼저 하단 마스크의 필름을 벗긴 후 위쪽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입 부위 위치에 맞춘 후 얼굴에 들뜸 없이 붙인다. 필름을 벗긴 상단 마스크의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눈, 코, 이마 부위에 맞춰 얼굴에 붙인다.

황동과 구리에 옷질을 하고,
레진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한
화병은 모두 김유정 작가.



자음생수 & 자음생유액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Water
&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mulsion

인삼이 품은 수분과 영양을 응축한 원료인 증삼수™를 담고 있어 피부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준다. 증삼수는 인삼을 증숙하고 다시 진공에서 건조하면서 포집된 수증기를 물로 냉각시키는 기다림과 정성을 담은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한 원료다. 자음생수는 탄력감과 수분감이 어우러진 제형으로 탄탄한 피부 바탕을 가꾸고, 자음생유액은 얇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오래 지속되는 보습력을 선사한다. 자음생수와 자음생유액을 함께 사용하면 뛰어난 보습력과 탄력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 **How to Use** 세안 후 자음생수를 화장솜이나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천천히 피부 결을 따라 바른다. 자음생수 사용 후 자음생유액을 손바닥에 적당량 덜어 얼굴과 목에 얹어놓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 피부 결을 따라 천천히 퍼 바른다.

자음생 라인 몸에 좋은 인삼이 피부에도 좋을 거라는 믿음으로 인삼을 향해 처음 걸던 길, 그 길에 50여 년의 고집과 진화된 기술이 더해져 인삼은 설화수를 대표하는 원료이자 브랜드의 초석으로 자리 잡았다. 예로부터 신비의 약초로 귀하게 여겨졌던 인삼은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기술과 정성을 만나 피부에 감동적인 효능을 선물한다. 진세노믹스™는 인삼의 부위별 효능은 물론, 재배법과 가공법까지 집대성하여 완성한 설화수 50년 인삼 연구의 정수를 이르는 말이다. 인삼이 품은 에너지의 근원은 Compound K로 찾아내고, 설화수의 특허 기술인 바이오컨버전 기술™은 인삼의 영험한 효능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특히 인삼에 대한 집념과 열정으로 잎과 줄기에서 찾아낸 진세노사이드 Rd와 인삼 꽃에서 얻은 진세노사이드 Re는 젊고 건강한 피부의 꿈을 이뤄준다. 모두가 인삼 뿌리에만 관심을 가질 때 설화수는 꽃과 열매, 잎과 줄기까지 살살이 연구해 인삼의 생명력을 오롯이 담아낸다.

생기를 잃고, 탄력이 무너지는 피부 노화의 걱정을 인삼의 힘이 담긴 자음생 라인으로 해결해보자. 자음생수와 자음생유액으로 농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자음생크림은 피부 내공을 키워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자음생마스크는 우아하고 화사한 피부 결로 가꿔준다. 여기에 피부 탄력 구조를 촘촘히 세워주는 자음생에센스가 더해져 탁월한 인삼 안티에이징을 완성한다. 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With the belief that ginseng is beneficial to the body and skin, Sulwhasoo has added 50 years of determin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make ginseng an ingredient that represents Sulwhasoo and the foundation of the brand. Known as a miraculous herb, ginseng is combined with Sulwhasoo's unique technology and devotion for impressive efficacies. Ginsenomics™ refers to the essence of Sulwhasoo's 50 years in ginseng research that has been completed with the efficacy of each part of ginseng, as well as the process of cultivation. It has been discovered that compound K is the source of energy in ginseng, and Sulwhasoo's patented Bio-conversion Technology™ effectively delivers the miraculous efficacies of ginseng. Both Ginsenoside Rd from the leaves and stems of ginseng and Ginsenoside Re from ginseng flowers realize the dream of a healthy, youthful skin. When everyone was interested in ginseng roots, Sulwhasoo studied ginseng flowers, berries, leaves, and stems thoroughly to capture its vitality. Alleviate your concerns about skin aging as it starts to lose its vitality and resilience with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Water and Emulsion supply rich moisture and nutrition to the skin, whil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strengthens the skin from deep within for a powerful anti-aging effect.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Mask leaves the skin looking elegant and radiant. With the addition of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to build a resilient skin structure, the exceptional ginseng anti-aging program has been completed.



플래그십 스토어를 채우는 설화수의 다섯 향기 Sulwhasoo's Five Scents Filling the Flagship Store

나날이 계절의 깊이가 더해지는 가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아름답게 가꿔주는 다섯 가지 향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가을의 색을 담은 새로운 포장 서비스도 기쁨을 더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설화수가 구현한 다섯 가지 향인 '청아지향', '백화지향', '윤조지향', '홍서지향', '흑여지향'. 이를 바탕으로 피부와 마음을 다스리는 5대지향 윤조에센스와 여은오일 컬렉션이 새롭게 선보인다. 주황과 카키 컬러 노방 보자기 포장과 복주머니 파우치, 미니 보자기 월병 증정 이벤트도 9월부터 진행된다.

우리 선조들은 마음을 다스려 몸과 삶을 다스리고자 했고, 이 이치를 담은 전통 향제법이 전해진다. <동의보감>에서도 향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문향을 즐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설화수는 이 기록을 현대적 감각으로 정리하여, 그 다섯 가지 향을 윤조에센스와 여은오일에 담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10월부터 먼저 선보인다. 설화수의 5대 향 중 청아지향은 푸른 숲길을 걷는 듯한 청량한 향기로 마음을 가라앉힌다. 백화지향은 매화의 향으로 기분을 맑게 해주고 윤조지향은 오리엔탈 허브 향을 베이스로 생명의 감각을 일깨운다. 홍서지향은 생기 넘치는 향이 기분을 북돋아주고 마지막으로 흑여지향은 뿌리에 응축된 영양을 담은 향기가 따뜻하고 은은하게 전해진다. 자음단™으로 피부 균형을 가꾸고 다섯 가지 향으로 마음까지 다스리는 5대지향 윤조에센스는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여은오일 컬렉션은 항산화 효능이 검증된 해송자유, 잣오일을 사용하여 향과 더불어 피부 케어에 도움을 준다. 한편, 가을을 맞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새로운 선물을 준비했다. 단풍과 가을 하늘을 각각 담은 주황, 카키 컬러 노방 보자기와 전통 술 장식으로 멋을 낸 리미티드 포장 서비스가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상 제공된다. 또한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복주머니를 모티브로 복을 기원하는 문양을 자수로 놓은 보자기 파우치를, 중국 중추절을 기념하여 10만원 이상 구매한 중국 고객 대상으로는 미니 보자기 월병을 증정할 예정이다. S

Korean ancestors wished to refine their minds by strengthening their bodies and enhancing their lives. A traditional perfume-making method reflects this approach. <Donguibogam> also tells us that they enjoyed purifying their minds through fragrance. Sulwhasoo has compiled this record with modern sensibility, showing five different scents i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and Serenedivine Oil at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in October.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n five fragrances not only restores the balance of the skin with JAUM Balancing Complex™, but also calms your mind with different scents, which let you experience the essence of Holistic Beauty. In particular, Serenedivine Oil also contains Korean pine seed oil and pine nut oil, which are known for its antioxidant properties, thus providing skincare besides fragrance. This fall,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will offer a new gift to the customers. The limited wrapping service, which has added the wrapping cloth in orange and khaki representing the autumn leaves and sky and the traditional tassels, will be provided to the customers who purchase over 100,000 KRW. For customers who purchase over 200,000 KRW, a pouch inspired by the traditional fortune bag will be given as a gift with the embroidery of patterns wishing for good luck. In celebration of Chinese Mid-Autumn Festival, all Chinese customers who purchase over 100,000 KRW will be given the mini mooncakes in a wrapping cloth.

풍요로운 가을만큼 풍성한 설화수 소식

흔들림 없이 탄탄한 탄력

설화수의 50년 인삼 연구의 정수를 담은 자음생에센스가 출시되어 놀라운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농축된 인삼의 에너지를 혁신적인 미세 캡슐 진세니스피어™에 담아 피부 속부터 탄탄한 탄력을 채운다. 이마, 눈가, 팔자주름, 미간, 뺨 등 얼굴의 모든 각도에서 촘촘하게 차올라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경험할 수 있다. 50ml 18만원대



금빛으로 찬란한 <설화문화전>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 전시인 <설화문화전>이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해 'Fortune Land: 금박전'이라는 주제로 10월 12일부터 12월까지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 신사옥에서 펼쳐진다. 한국 전통의 '금박' 예술을 무형문화재 김덕환 장인과 김기호 이수자의 작품 및 금박과 길상 문양을 재해석한 현대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더불어 금박 패턴이 새겨진 파우치와 운조에센스, 퍼펙팅쿠션이 각각 구성된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키트를 선보인다. 각국의 전통 문화 유산을 후원하는 'Beauty from Your Culture' 캠페인은 2017년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2018년에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더욱 풍성하게 확장될 계획이다.



설화수와 만난 장인의 고결한 명작

설화수는 전통 장인들의 고귀한 작품에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자음생수, 자음생유액, 자음생크림(오리지널&라이트)이 담긴 '자음생 명작 세트'를 선보인다. 수백 년 된 수령의 느티나무를 견고한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조화신 소목 장의 경대함과 섬세하게 두드려 십장생 문양을 새긴 박문열 두석장의 두석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염원하는 십장생 문양을 수놓은 보자기 포장은 전통 규방공예 박인숙 작가의 솜씨다. 자음생 명작 세트는 오는 10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빛나고 품격 넘치는 기색

'뷰티 크림'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개발된 설화수의 신제품 예빛크림이 품격 있는 얼굴빛으로 밝혀준다. 열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식물인 '황금' 성분이 멜라닌 이동을 감소시켜 빛나는 피부를 구현하고, '금은화' 성분은 피부 결을 촘촘하고 매끈하게 관리한다. '살구씨 오일' 성분은 윤기를 부여해 건강하고 우아한 안색으로 가꿔준다. 예빛크림을 1겹 바르면 광채 케어를, 2겹에는 결 케어, 3겹에는 윤기를 더해 덧바를수록 다양한 효과를 선사하고, 여러 번 발라도 가볍게 흡수되는 반전 텍스처로 피부가 윤택해진다. 50ml+20ml 세트 15만원대, 20ml 5만원대(10월 출시)



입술이 예뻐지는 계절

건조한 날씨로 입술 관리에 신경이 쓰이는 가을을 맞아 설화수는 에센셜 립마스크 2종과 가을 컬러를 담은 에센셜 립세럼 스틱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에센셜 립마스크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모이스처 제품과 상처를 완화하고 진정시키는 리커버리 제품으로 구성되어 건강한 입술로 가꿔준다.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유명한 에센셜 립세럼 스틱은 가을에 어울리는 차분하고 세련된 컬러인 59호 어텀레드, 38호 서틀 핑크가 새롭게 출시된다. 에센셜 립마스크 (모이스처, 리커버리) 10g 4만5000원대/ 에센셜 립세럼 스틱(59호 어텀레드, 38호 서틀 핑크) 3g 4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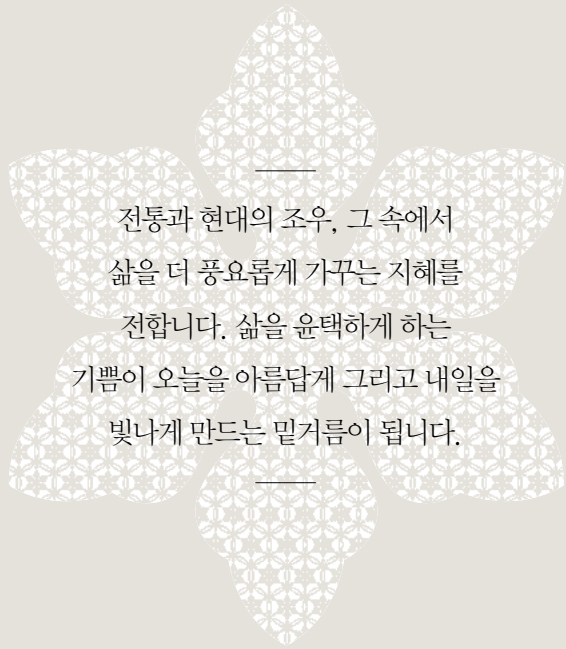
설화수
雪花秀

Sulwhasoo

한 겹 커버로 화사함까지 살리다 마침내, 꿈꾸던 피부로 설화수 쉬어 래스팅 젤 쿠션

모든 것을 가리기만 하는 메이크업은 당신이 지닌 매력까지 덮어버리죠. 잡티는 커버하면서도 본래의 피부빛은 자연스럽게 살리는 쉬어 래스팅 젤 쿠션. 산자나무 열매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담긴 새로운 멜팅 젤 텍스처가 얇고 가볍게 밀착돼 보송한 마무리감과 은은한 광채로 하루종일 화사한, 꿈의 피부를 만나세요.





의류관



쪽물 염색은 정성스레 색을 여러 번 들여야 푸르름이 더 깊어지고 나중에 물이 빠져도 멋스럽다. 늘 곁에 두고 피부에 가까운 스카프에 자연의 색이 스며들었다. 백자 달 항아리는 광주요, 파란색 사과 오브제는 우일요.

자연의 색을 담은 멋진 자락

쪽 염색 배우기

흔히 푸른 하늘이나 바다를 '쪽빛'에 빗댄다. 마음이 저릴 만큼 푸른 그 색을 '쪽'이라 발음하면 더욱더 짙은 파랑이 번질 것만 같다. 자연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역시 자연에서 온 표현으로 말해서일까.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박재민 도움 주신 곳 하늘물빛 전통천연염색연구소

요즘 TV 광고를 보면 실제보다 더욱 실제 같은, 선명한 색깔 구현을 앞다투어 내세운다. 실제로 매장에서 그러한 커다란 TV를 보면 말할 수 없이 짙은 색깔들이 소용돌이친다. 흑백이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원색에 가까운 또렷한 색상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세상. 그런데도 어째서 자꾸만 편안하고 수수한 색에 마음이 더 가는 것일까. 그리운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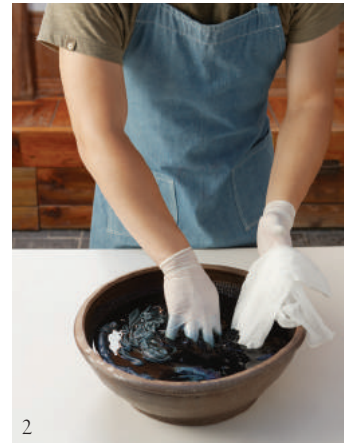
먼 옛날 우리 조상 역시 선명한 고운 색을 갖고자 무수한 노력을 했다. 자연의 갖가지 색을 가져오려 연구를 거듭했고 결국 염색법을 알아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갖고 싶은, 인간의 오랜 본능일 터이다. 전통 염색은 꽃, 나무, 벌레, 조개 등의 천연 재료를 사용해 물을 들이는 천연 염색 방식이다. 천연 염색은 쪽물, 감, 치자, 소목蘇木 등 다양하고 염료는 식물의 잎이나 꽃, 열매의 즙, 뿌리와 해초류 등 식물성 염료, 돌이나 흙에 함유된 광물성 염료, 동물의 피나 오징어 먹물, 조개류의 분비물 등 동물성 염료가 있다.

보통 진한 푸른색을 표현하는 쪽은 남빛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인디고(Indigo)다. 인디고의 어원은 라틴어의 '인디컴(indicum)'으로 보이

는데 이 역시 쪽의 명칭이다. 마디풀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인 쪽은 한자로 '남藍'이라 하며 동서양 모두 염색에 오랫동안 쓰였다. 이집트에서는 3300년 전 투탕카멘 묘의 출토물로 밝혀진 바 있고, 기원전 1세기에 그리스와 지중해 연안 제국에 수출했다고 한다. 12세기경에는 페르시아 상인에 의해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와 독일까지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서기 직후의 <순자管子> '권학편勸學篇'에 "청은 남에서 나고 남으로 청을 물들인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도 남초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60년(백제 고이왕 27)에 이미 청색 염색을 시작했으나 재배와 제남, 염색은 국내용 충당도 부족하여 무척 귀했다.

쪽은 염색만이 아니라 잎, 씨앗,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염료의 성분에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효과가 있어 동양 민간요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료다. 그래서 쪽으로 염색한 옷은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도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 쪽물을 적서 올려두는 것은 천연 염색을 하는 사람 사이엔 잘 알려진 처방이다. 깊은 바닷빛을 닮은 이 신기한 풀은 몸에도 이롭다.



쪽물 스카프 만들기

준비물 스카프용 무지 천면이나 명주 소재, 쪽물, 장갑

만드는 방법

- 1 염색할 천은 미리 맑은 물에 담가 적신 뒤 꼭 짜둔다.
- 2 쪽물을 담은 대야에 물에 적신 천을 천천히 넣는다. 쪽물이 골고루 잘 들도록 손으로 주무르고 10분 정도 기다린다.
- 3 염색이 된 천을 들어 올려 공기와 닿게 하면, 진한 녹색이었던 천이 푸르게 변한다.
- 4 원하는 색이 될 때까지 다시 쪽물에 담그고 공기에 산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 5 물에 헹궈 젖물을 뺀 다음 말린다. 색을 더 진하게 하려면 천이 마른 뒤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하늘물빛 전통천연염색연구소 북촌에 위치한 천연 염색과 전통 매듭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공방이다. 기본, 자격증,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 깊이 있는 염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쪽 염색 티셔츠나 스카프를 만들 수 있는 일일 체험 클래스도 운영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48 **문의** 010-9441-6352

쪽물 염색은 우리 전통 염색을 대표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과 횟수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져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과거 쪽염은 십자화과에 속하는 대청大靑과 여귀과의 남초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주로 남초만 쓴다. 쪽은 따스한 지방에서 잘 자라는 풀로 남쪽에서 재배한 것이 더 많은 염료가 나온다. 쪽염을 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얻을 수 있는 염료도 많지 않다. 하지만 청색을 얻는 천연염료는 쪽이 유일하니 그 노력이 더 가치 있다.

쪽물을 들이기 위해선 먼저 염료를 만들어야 한다. 꽃대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쪽을 베어 한 섬 정도의 양을 항아리 안에 차곡차곡 채운다. 물을 가득 부어 평평한 돌로 누르고 항아리 입구를 비닐로 막는데, 이때 비닐에 숨구멍을 뚫어둔다. 햇빛이 좋으면 2, 3일 후에 쪽대를 건져낸 뒤, 색이 우러나온 쪽물은 고운체를 이용해 찌꺼기를 거른다.

거른 쪽물에는 패각회나 석회를 넣고 풀어주면서 계속 고무레질을 하

면 물빛이 황색에서 연녹색으로 변한다. 이 고무레질로 쪽물에 산소가 유입되면서 기포가 생기고 색이 점점 청색을 띤다. 색이 진청색으로 변하고 맑은 기포가 조금씩 생기면 비로소 색소와 물이 완전히 분리되어 염료화한다. 고무레질이 다 끝나면 며칠 두었다가 윗물을 따라내면 염료가 완성된다. 천에 염색을 들이기 전에 쪽 염료에 젖물을 섞어 발효시키면 염색 밀과정이 모두 끝난다.

발효한 쪽물에 미리 물에 적셔놓은 천을 넣고 가볍게 주물러 색이 들게 한 후, 15분 정도 둔다. 염색한 천이 녹색 빛이 되면 들어 올려 공기에 노출시키는데, 이때 천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파란색으로 변한다. 색을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다시 쪽물에 담가두는 과정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에 헹궈 젖물을 빼고 난 뒤 널어 말리면 쪽물 염색이 모두 끝난다.

자연에서 온 푸른빛을 얻기 위한 과정은 그 마디마디가 참 고되고 정성이다. 속된 세상에서 하늘과 바다를 닮기 어디 쉬운까. S

건강한 식탁 위 은은한 그 빛 Subtle Radiance on a Healthy Table

이글대는 불 위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쇠붙이는 다시 호된 메를 맞이해야 한다. 슬한 메질로 점점 어떠한 형태를 이룬다. 그 아픔 끝에 부엌살림에 유용한 그릇이, 신나게 노래하는 팽과리가, 조상의 고마움을 담는 제기가 된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문채훈 작가

조선시대 식기는 그 이전보다 더 다양해지고 종류도 늘어났다. 사기그릇, 놋그릇, 나전그릇이 특히 사랑받았는데 특히 놋그릇은 17~19세기 전반기에 양반 계층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 주민이 널리 이용했다. 18세기 유학자 유득공은 <경도잡지>에서 조선 시대 후기 서울 사람들의 생활상을 기록했는데 그중 조선인의 놋그릇 사랑에 대한 언급이 흥미롭다. “지금 풍속에 놋그릇을 소중히 여겨 집집마다 반드시 밥, 국, 나물, 생선을 담는 놋그릇 한 짝을 갖춰놓으며 심지어 대야나 요강까지 놋으로 만든다.” 이처럼 유기는 식기류뿐 아니라 대야, 요강, 향로, 쫄대 등 일상생활의 기물에도 요긴하게 쓰였으며 바라나 중, 제기 등 종교용품이나 팽과리, 징과 같은 농악기의 재료이기도 했다.

다양한 쓰임 중 특히 식기로 사랑받은 이유는 유기의 화학적 성질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궁중에서 임금의 수라상을 은침으로 검수해 유해한 물질을 가려냈는데, 유기도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져 독이나 해로운 성분에 반응해 검게 변한다. 또한 해로운 성분을 막기도 한다. 실제로 식중독균이 유기그릇 안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없어진다는 게 밝혀져 화제가 됐다. 이런 민감한 특성은 한편으로 관리하기 까다로운 요소가 되기도 한다. 조금만 소홀해도 색이 변하기 때문에 자주 닦아 주어야 한다. 옛 여인이 시집갈 때 혼수로 해운 그릇과 요강 등을 매일 매일 반질반질하게 닦는 것은 큰 가사노동이었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즐겨 쓴 이유는, 항상 생활을 살피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려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S

The Joseon Dynasty used more kinds of tableware, as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s. Chinaware, brassware, and dishes with mother-of-pearl inlay were particularly popular. In addition, brassware was widely used by the nobility and wealthy urban dwellers from the 17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Yoo Deuk Gong, a Confucian scholar from the 18th century, recorded in <Gyeongdojapi> the lifestyle of Seoul reside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 was mentioned how they loved their brassware. Interestingly, it was stated, “The people love their brassware, so each household has a set of brassware for rice, soup, greens, and fish. They even make their basins and movable toilets out of brass.” Brassware was particularly loved for tableware probably because of its chemical properties. In the palace, the king’s tables were tested with a silver needle to see if there are any harmful substances in the food, because brassware turns black when there is poison or other harmful substances inside. Due to these sensitive properties, brassware is hard to maintain. You have to wipe it often because it is easily discolored if you do not pay attention. It must have been exhausting to constantly wipe the dishes and movable toilets every day for the women in the past. They enjoyed using brassware nonetheless probably because of their way of life where they are used to being attentive and devoted to even the most trivial things.



유기 반상, 일제시대



Full Moon series, 옷칠 유기, 문채훈 작가

장인의 손길로 설화수를 담다 헤리티지 장인 컬렉션

전통 장인의 노련한 솜씨와 정신이 깃든 귀한 공예 작품이 설화수의 자음생 라인과 만났다.
소중한 이를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정성이다. 느티나무의 아름다운 곁 오롯한 경대함을 앞에 둔 그 미소는 또 어떨까?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조화신 소목장, 박문열 두석장의 솜씨로 탄생한 느티나무 십장생문 두석 장식 경대와 자음생에센스, 자음생수, 자음생유역, 자음생크림(오리지널 & 라이트)이 함께 구성된 '자음생 명작 세트'는 십장생 문양을 수놓은 강릉 수보자기 포장에 더해져 소중한 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설화수의 격조 높은 선물인 '자음생 명작 세트'는 10월부터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한정 판매된다.



고운 얼굴 비춰보는 자음생 명작 세트

자연과 인간, 몸과 마음이 하나이며 그 조화와 균형이 만드는 아름다움을 이끄는 설화수의 철학. 그리고 자연의 재료를 사람의 정성과 솜씨로 다듬고 공들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드는 전통 장인. 이 둘이 만나 오래 공리하여 귀한 선물을 내었다. 설화수가 전통 장인들과 협업한 자음생 명작 세트는 오랜 솜씨와 지혜가 담긴 작품에 설화수의 정수를 담아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맛이 깊어지는 느티나무 십장생문 두석 장식 경대는 자음생 라인과 어우러져 고귀함과 기품을 더한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윤기를 간직한 수백 년 이상 수령의 느티나무를 조화신 소목장의 손길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 만들었다. 목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사개물림과 연귀짜임을 적용해 단단하고 고매한 품격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느티나무 경대함에는 전통 기법 그대로 섬세하게 두드려 새긴 박문열 두석장의 우아한 장식을 달아 만들새를 완성했다. 사슴, 소나무, 바위 등의 십장생 문양을 아름답게 새겼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십장생 문양은 동양권에서 불로장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길상무늬로 널리 쓰였다. 평화를 상징하는 신성한 사슴, 수호와 복을 의미하는 거북, 사시사철 푸르름이 변치 않는 소나무 등 예로부터 오래 산다고 믿었던 열 가지 물상으로, 소중한 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금빛 자수 보자기로 격조를 더하다

자음생 명작 세트는 그 포장도 특별하다. 귀한 마음을 수놓은 십장생 금사 자수와 인연이 오래 이어지길 기원하는 기러기 매듭, 그리고 솜씨와 정성이 깃든 강릉 수보자기가 어우러져 화려함과 격조를 높인다. 궁중에서만 놓을 수 있었던 금사로 섬세하게 표현된 사슴, 학, 거북, 소나무 등 십장생 문양의 장식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염원하는 마음을 수놓았다. 알록달록한 색들의 조화가 사랑스러운 매듭은 기러기를 형상화해 신랑신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한다. 전통 규방공예 박인숙 작가의 솜씨로 만든 보자기에서는 강릉 규방 공예의 고유의 멋과 높은 작품성을 눈과 손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어느 한 곳 허투루 지나침 없이, 찬찬히 마음을 다해 준비한 정성이다. S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조화신 소목장이 느티나무를 정성스레 다듬고,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박문열 두석장이 섬세하게 두드려 새긴 두석이 조화를 이룬 경대함에는 구석구석 마음이 깃들었다.

경주에서 만나는 천년의 사랑

경주는 옛이야기를 풀어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 도시다.
연이어 이어지는 오랜 돌담 위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거대하고 푸른 무덤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에 안고
고요하게 오늘에 이른 이 오래된 도시에서 전설을 노래하는 공연을 만났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정동극장

2018 정동극장의 경주 브랜드 공연 <에밀레>는 천년 왕조라 불리는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여덟 살에 왕위에 올라 스물두 살에 요절하고 만, 신라 해공왕의 비극적 탄생 설화에 에밀레중(성덕대왕 신종) 설화를 더하여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다. 에밀레중은 '에밀레'라는 가상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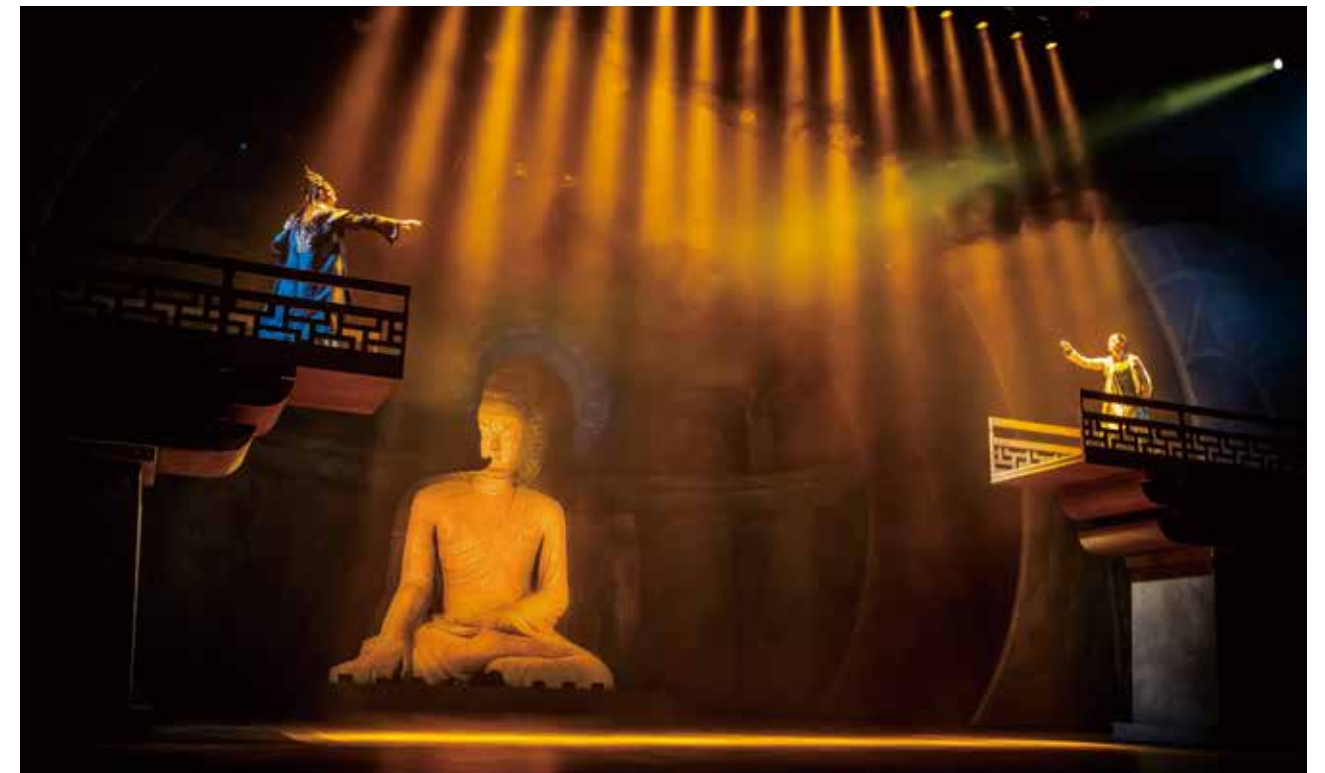
신라가 번성하던 1200년 전, 그 오랜 시간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두 명의 두드러진 인물을 마주할 수 있다. 바로 선덕여왕과 해공왕이다. 한국사 최초로 여왕의 권좌에 오른 선덕여왕은 온갖 불안과 파격을 제압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술혼을 구축했다. 해공 또한 정적들의 끊임없는 겁박과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마침내 통일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두 사람의 예지로운 판단과 왕성한 문화 예술 활동이 천년 왕조 신라를 지탱하게 한 중요한 두 줄기 근간이었던 셈이다.

경주 정동극장에서는 이미 5, 6년 전 선덕을 주제로 한 <미소2-신국의 땅, 신라>가 전폭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적이 있다.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 초석을 마련해낸 것이 선덕이었다면, 그 오랜 대업의 염

원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결실로 300년에 이르는 통일신라의 찬란한 여명을 밝혔는지에 주목한 것이 바로 <에밀레>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 2011년 정동극장 경주 브랜드 공연이었던 <신국의 땅, 신라>에 참여한 제작진들이 다시 모여 보다 안정적인 호흡을 맞춘다.

공연은 총 8장(탄생, 세월, 대관식, 대립, 사랑, 탐욕, 운명, 귀의)의 무용 가무극으로 구성되었다. 신라 36대 해공왕과 여인 '에밀레'의 운명적 만남과 이뤄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인신공희담(人身供犧談) 전설을 배경으로 의미심장하고 애절하게 새로이 각색, 연출하였다.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해공왕과 여인 에밀레 그리고 무녀 소화와 연적인 용이 펼치는 활약이 두드러진다. 한편 무대에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해 거대한 범종과 석굴암, 불국사, 월정교 등 경주의 다양한 문화재를 입체적인 무대로 선보여 극의 생동감을 살리고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름답고 웅장한 종소리와 함께 낮게 드리운 구름 사이로 한 여인이 힘차게 날아오른다. 부드럽고 화려한 움직임이 유명하듯 이어질 때, 맞은편에서 남자의 형상을 한 또 하나의 움직임이 더한다. 한 쌍의 비



천 년의 고도 경주에서 만나는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 이야기 <에밀레>는 옛 설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동시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대형 LED 화면 등으로 오래된 이 도시의 흔적들을 감각적으로 담아낸다.



익조처럼 보였다. 흠여지기를 반복하며 두 사람이 천상을 향해 점점 사라진다. 신비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미지의 프롤로그다. 이제 본격적으로 극이 시작된다. 비바람 몰아치는 궁중. 문무백관들이 신물神物을 들고 양쪽으로 도열한 가운데 희뿌연 창호 문 너머로 여인의 산통이 실루엣으로 전해진다. 상서로운 푸른빛의 번개와 폭발하는 천둥의 굉음이 높아갈 즈음, 마침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신라 36대 왕 해공이 탄생한다. 1장(탄생)은 신라 36대 왕의 비극적인 탄생과 함께 제의를 관장하는 무녀 '소화'의 카리스마 넘치는 몸짓이 객석을 압도하며 몰입도를 높인다. 3장(대관식)에서는 해공왕과 여인 에밀레의 운명적 만남이 이뤄진다. 불국사로 향하는 왕의 행차를 보기 위해 운집한 군중 속에서 에밀레가 손에 든 피리를 놓치고, 해공왕이 발밑의 피리를 주워 에밀레에게 건넨다. 그 순간 애잔하고도 강렬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며 본격적인 사랑의 전설이 시작된다. 하지만 왕족과 천민이라는 신분 차는 비극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는 해공의 정적이자 연적 '용'의 계략으로 이들의 사랑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결국 에밀레는 용의 사주로 납치되고, 그녀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해공이 위험해질까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마음먹는다. 제단 위에서 해공을 향한 처절하고도 애절한 춤과 노래를 시작하는 에밀레. 시뻘건 불꽃 넘실거리는 주물 현장.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제단 위의 에밀레는 해공을 향한 처절하고도 애절한 마지막 춤과 노래를 시작한다. 높아지는 북소리와 함께 에밀레의 움직임이 절정으로 치달는 순간, 마침내 들끓는 쇳물 속으로 에밀레가 스스로의 몸을 던진다. 월성교 위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해공이 오염하며 무너진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장한 손길로 서서히 화살에 시위를 당기는 해공. 날카로운 화살이 허공을 가르며 용의 가슴에 날아가 깊숙이 박힌다. 8장(귀의)의 군무가 펼쳐지는 화려하고 강렬한 북춤은 이 공연의 멋진 볼거리 중 하나이다. 또한 에밀레가 들끓는 쇳물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지는 장면을 표현한 영상과 높아지는 북소리는 아슬아슬한 위기감

〈에밀레〉 공연 일정

장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공연장

일시 5월 22일(화요일) ~ OPEN RUN / 화 ~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일·월요일 공연 없음)

문의 및 예매 정동극장 www.jeongdong.or.kr / 054-740-3800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을 더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에밀레의 희생을 본 해공이 오염하며 용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극은 절정에 이른다. 에필로그는 비극적 죽음과 절정,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한다. 거대한 청동 종을 뒤따르며 새로운 종의 탄생을 축연하는 민초의 춤과 노래가 이어진다. 결연한 표정의 해공이 힘차게 타종을 시작한다. 웅장하면서도 청아한 종소리가 아름다운 경주의 온누리에 울려 퍼진다. 청동종에 새겨진 에밀레를 닮은 여인의 모습이 영상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종소리와 함께 여인이 허공을 향해 비상하고 맞은편에서 해공의 형상을 한 남자가 그녀를 맞는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이 천상을 향해 점점 사라져 간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에밀레종 설화가 비극적인 신라왕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까마득한 과거의 그들이 펼치는 사랑과 갈등, 선택의 순간은 시대를 초월한 공감대와 감동을 만든다. '경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경주다운 공연'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다. S

벽에 드리운 멋진 점

집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벽은 집 안 분위기를 바꾸기에 가장 효과적인 공간이다. 도배나 페인트칠을 새로 해서가 아니라 멋들어진 소품 하나만 걸어도 근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에디터 박효성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플로리아)



은은한 펄이 빛에 따라 다른 색감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새 조형물은 특별한 도구 없이 종이로 조립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파파컬렉션



벽면에 거는 육각형 모양의 모듈 스피커는 수량과 색상 조합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고 사운드 성능도 선택할 수 있다. 뱅앤올룹슨.



연꽃 물고기 무늬 병이 그려진 타월을 족자로 걸면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작은 창문에는 간지 커튼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본리빙 by 해브빈서울.

깊은 고민 끝에 선택한 벽지와 마음의 드는 가구까지 배치했지만 어딘가 허전하다고 느껴진다면 벽에 관심을 가져보자. 넓은 벽에 작은 거울, 액자 하나라도 걸면 미묘한 느낌을 지우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큰 비용이나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간단한 소품만으로도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최근에는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테리어 아이템이 출시되어 감각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먼저 다양한 디자인의 거울이나 벽시계에 주목해보자. 그림이 그려진 거울은 액자 못지않게 예술적인 포인트를 줄 수 있고, 매일 시시때때로 바라보는 벽시계는 집 안 분위기에 맞춰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컬러와 패턴이 다양하고 무게는 가벼워 벽에 걸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페브릭 액자는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벽에 거는 작은 선반에 취향이 담긴 소품을 진열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때는 넓은 벽면보다는 코너 벽이나 주방 벽면을 꾸며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벽은 개성과 취향, 계절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임을 잊지 말자. S



거울과 철재를 조합한 모던한 디자인의 사각 거울. 철재 라인과 거울이 포개지는 폭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 레어로우.



벽에 설치해 코트나 가방 등을 걸 수 있는 후크. 설치하는 개수나 모양에 따라 개인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 무도 더 도트 후크 by 에이컬러스.



시계 침에는 새 한 마리가 앉아 있고, 시계추에는 나비가 흔들거리며 움직이는 금속 벽걸이 시계는 문순원 작가 by KCDF갤러리숍.



고운 꽃이 피어난 정원의 모습이 그려진 거울은 마치 풍경이 담긴 창문 같다. 하우스 오브 콜렉션스.



옷걸이를 미니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스카프나 장갑 등을 수납하기도 좋다. 마기쓰.



부드러운 아치형이 독특한 벽거울. 앞쪽에 선반이 있어 열쇠나 작은 물건을 둘 수 있다. 비모토리빙.



초를 벽에 걸어 따스하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황동 소재 홀더. HAY by 이노메샤.



동그라미와 직선을 위트 있게 디자인한 미니 선반. 공간에 생기를 더하는 포인트가 된다. 레어로우.



자개로 도트 무늬를 새긴 옷칠 수납장. 기법과 소재는 전통적이지만 디자인은 모던하고 미니멀하다. 함도하 작가.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공중비누 홍삼전엽의 항산화 효능으로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깔끔히 없애주는 촉촉하고 편안한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38,000원대 100g x 2 45,000원대	순행클렌징워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깔끔히 없애주는 촉촉하고 편안한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38,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신선한 사용감의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물리도록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깔끔히 없애고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400ml 35,000원대 400ml 62,000원대
---	--	---	---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90,000원대 90ml 120,000원대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는 윤기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50ml 40,000원대 110ml 7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한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6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하는 젤 타입 스킨 에센스 125ml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퍼 발리고 밀착되어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에센스 125ml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105,000원대
---	---	--	--	---	--	--	--

스페셜 라인

소션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인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150,000원대	에잇크림 빛 결 윤으로 육다친을 밝혀 하루 종일 풍겨오는 기색을 유지하는 빛 크림 50ml + 20ml 150,000원대 튜브 20ml 50,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모이스처) 천공 당귀수 대추 추출물이 촉촉하게 매워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립 마스크 10g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리커버리) 병풀 성분! 손상된 입술 표면을 촉촉하게 매워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립 마스크 10g 45,000원대	백옥 보석 마사저 얼굴과 목 바닥까지 마사지를 해 리프트 케어와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100% 백옥 소재 마사저 240,000원대
--	--	--	---	---

자정 라인

에소칠크림&패치 입가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200,000원대	탄력크림 자선체™의 57가지 항산화 오일로 연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인티에이징 크림 60ml 80,000원대	명익분초앰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미세 결을 진세-스피어™가 꼭 친숙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8ml x 4 200,000원대	자정클렌징폼 백도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해 깨끗한 피부를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클렌징 폼 150ml 40,000원대	자정토닝팩 자정 성분을 담은 젤 포뮬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바탕을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80ml 65,000원대	자정수 자정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 올려 주는 젤 타입 브라이팅 스킨 125ml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를 가꾸어 주는 브라이팅 스킨 125ml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50ml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잔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름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폿 트리트먼트 25ml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에센스 콜린 지방 아미노산과 펩티드 성분으로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아이에센스 15ml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자정미백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팅 크림 50ml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차량 시트지 조각전으로 만든 인센과 탄력성을 선사해 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5매 65,000원대	스بان크림 (SPF 50+ / PA++++) 피부 보호에 집어 넣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인티에이징 스킨케어 마스크 40ml 75,000원대	설린수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게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가꾸어주는 생기탄력 에센스 150ml 75,000원대	설린에센스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바탕을 가꾸어주는 생기탄력 에센스 50ml 140,000원대	설린크림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 유해오염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탄력 크림 50ml 150,000원대
--	---	--	---	--	--	---	---	--	--	---	--	---	---	---	--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홍삼수™가 동일한 한결 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앰플 125ml 8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홍삼수™가 매끈한 피부에 촉촉한 영양을 공급하는 인티에이징 앰플 125ml 90,000원대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스피어™가 꼭 친숙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50ml 20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인삼 결장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60ml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장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신뜻한 질감) 60ml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할 거품의 데일리 스크림 경용 클렌징 크림이 시트 마스크 5매 120,000원대	자음생페이셜오일 귀한 인삼 정유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영양 윤기 장벽 케어를 선사하는 페이스 오일 에센스 20ml 130,000원대	수율미스트 즉각적인 청량력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맑은 수분 크림 100ml 42,000원대	수율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90,000원대 75ml 110,000원대	수율선향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선향플루이드 50ml 55,000원대	진설수 적송 성분이 즉각 흡수 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송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깊어 보이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앰플 125ml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송의 생생함과 향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토탈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33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송 성분과 콜로이드 케어 마스크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인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탈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270,000원대
--	--	---	---	---	--	--	---	--	---	---	--	---	---	---	--

다함설 라인

진설크림 적송과 송이의 생생력으로 한결 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인티에이징 크림 60ml 450,000원대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개인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폼 150ml 60,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젊음을 선사하는 피부 강화 혁신 인티에이징 크림 60ml 650,000원대	살인팩 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85,000원대	여윤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52,000원대	옥윤팩 옥의 기운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42,000원대	에울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물리되고 촉촉함과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파밍 마사지 크림 120ml 55,000원대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피부유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림 경용 클렌징 150ml 30,000원대	본윤에센스 주름 탄력 촉진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티에이징 에센스 140ml 73,000원대
---	--	--	--	---	--	--	--	---

옴션 라인

본윤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로션 90ml 52,000원대	본윤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인티에이징 크림 40ml 90,000원대	밀렉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40,000원대
---	---	---

MEN

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법과 미세한 케어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캐버 윤기 쿠션 15g x 2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맑은 추출물이 화사하게 빛나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 x 2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티에이징 쿠션 15g x 2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멀티 쿠션 하이라이터 피부에 생기 물감을 선사하는 펠 페이스 겸 하이라이터 8g 40,000원대	파우더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섹팅되어 방금 메이크업한 듯한 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파우더 쿠션 8g 40,000원대
--	--	---	--	--

메이크업밸런서

메이크업밸런서 (SPF 34 / PA+++) 유·수분·피부 힘·톤·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60,000원대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60,000원대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 35 / PA+++) 쉬어 하이dra 포뮬러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 30ml 58,000원대	쉬어 래스팅 젤 쿠션 (SPF 35 / PA+++) 열링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링으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쿠션 에센스 BB (리필 42,000원대)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브라이팅 팩트 에센스 BB 30ml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브라이팅 팩트 에센스 BB (리필 45,000원대)	에서 파운데이션[리워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55,000원대	에서 파운데이션[크림] (SPF 20 / PA+) 영양 크림을 바른 듯 매끄럽게 커버해주는 크림 파운데이션 30ml 55,000원대	에서 스킨커버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3가지 빛깔의 보석 11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영롱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어주는 파우더 20g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진설 유메이크업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90,000원대	진설 오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90,000원대	진설 유팩트 영롱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진설러 스틱 1호 미디엄 핑크 2호 미디엄 베이지	레이디스 블러셔 1호 핑크 하모니 2호 코랄 하모니	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에브리퀴 세럼 2호 블러썸 세럼 3호 플라워 핑크 4호 로즈 레드 5호 블러썸 코랄 7호 딥 베이지 9호 글로우 오렌지 10호 비버드 핑크 11호 레이디언트 레드 12호 소프트 오렌지 33호 서플 핑크 59호 아담 레드 	아이브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호 라이트 브라운 3호 에서 브라운 34호 딥 브라운 75호 다크 그레이
---	---	---	---	---	---	---	---	--	--	---	--	--	--	--	---	---	---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p>윤조에센스 5대지향 컬렉션 (청아지향/백화지향/윤조지향/홍서지향/흑여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설하수의 향으로 감성을 일깨우고, 피부균형을 맞춰주는 자율단™이 건강한 피부윤기와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는 5가지 윤조에센스 90ml 120,000원대</p>	 <p>여은오일 5대 향 컬렉션 (청아지향/백화지향/윤조지향/홍서지향/흑여지향) 귀한 한방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채워주고, 자연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설하수 5대향으로 내만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리치&라이트 타입 페이스 오일 20ml 85,000원대</p>	 <p>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 자율단™이 피부 윤기를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첫 단계 에센스 60ml 90,000원대 120ml 150,000원대</p>	 <p>자음수 랜턴컬렉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젤 타입 스킨 125ml 57,000원대</p>	 <p>자음생우액 랜턴컬렉션 매끄럽게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며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소프트 로션 125ml 63,000원대</p>	 <p>퍼펙팅쿠션 인텐스 랜턴컬렉션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절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티에이징 쿠션 15g x 2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	--	---	---	--	--

 <p>자음생크림 랜턴컬렉션 인상 결정체기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60ml 250,000원대</p>	 <p>자음생크림 라이트 랜턴컬렉션 인상 결정체기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60ml 250,000원대</p>	 <p>에센셜밤 비디부터 헤어까지 설하수의 홀리스틱 부티를 경험할 수 있는 멀티 보습 밤 10g 40,000원대</p>	 <p>딥 릴렉스 밤 천연 성분으로 지친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릴렉스 밤 10g 40,000원대</p>	 <p>립 틴트 밤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가벼워주는 보습 틴트 립밤 10g 40,000원대</p>	 <p>공중비누 - 소나무 청량한 소나무 향이 마음과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40일 숙성 프리미엄 비누 100g 25,000원대</p>	 <p>공중비누 - 홍삼 깊은 한방향이 활력을 선사하며, 향신료 효능의 홍삼 잔액을 함유한 40일 숙성 프리미엄 비누 100g 25,000원대</p>	 <p>공중비누 - 샬구 신그로운 샬구향이 기분을 진화시켜주며,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40일 숙성 프리미엄 비누 100g 25,000원대</p>	 <p>공중비누 - 매화 백매화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며, 깨끗하고 청아한 피부를 가꾸어주는 40일 숙성 프리미엄 비누 100g 25,000원대</p>
---	---	--	---	--	--	---	---	---

 <p>윤조지향 향초 나무의 따뜻함으로 내면의 감성을 깨우는 기쁨 있는 향의 스페셜 향초 200g 100,000원대</p>	 <p>매화지향 향초 백매화의 생명력과 고귀함을 공경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스페셜 향초 200g 100,000원대</p>	 <p>윤조지향 포푸리 한방 원료와 나무의 따뜻하고 기쁨 있는 향의 조화로 공감을 고금스럽게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 100g 120,000원대</p>	 <p>매화지향 포푸리 한방 원료와 백매화의 생명력이 담긴 향의 조화로 공간에 생기를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 100g 120,000원대</p>	 <p>윤조지향 향낭 한방 원료와 기쁨 넘치는 나무 향이 어우러져 옷장, 서랍, 차 안 등에 자연을 채워주는 한방 향낭 40g 40,000원대</p>	 <p>매화지향 향낭 한방 원료와 고귀한 백매화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옷장, 서랍, 차 안 등에 자연을 채워주는 한방 향낭 40g 40,000원대</p>	 <p>매화지향 향유 백매화의 생명력을 담은 은은한 향으로 지친 피부와 마음에 에너지를 선사하는 오일 타입의 향수 스프레이 30ml 130,000원대</p>	 <p>윤조지향 향수 스프레이 나무의 따뜻함을 남기는 동양적인 우디 계열의 기쁨 있는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 15ml x 2ea 120,000원대</p>	 <p>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 백매화의 생명력과 고귀함을 담은 향이 담긴 휴대가 간편한 향수 스프레이 15ml x 2ea 120,000원대</p>
---	---	---	---	--	--	--	---	--

 <p>윤조지향 핸드크림 새벽 숲의 청량함으로 깨운 나무의 따뜻함을 남기는 향을 담은 고급 핸드크림 40ml 30,000원대</p>	 <p>매화지향 핸드크림 백매화의 생명력과 고귀함을 담은 은은한 향을 담은 고급 핸드크림 40ml 30,000원대</p>	 <p>홍삼발효차 제주 삼나무와 숙성한 후 발효차에 귀한 홍삼을 불연성 발효차 1.8g x 10ea 25,000원대</p>	 <p>매화차 눈 속에서 피어나 봄의 화망을 전하는 청초하고 우아한 매화를 담은 매화 허브티 1.8g x 10ea 25,000원대</p>	 <p>샬구 곡우 절기에 제주 차 밭에서 채취된 어린 찻잎을 담은 전통 찻살차 1.8g x 10ea 20,000원대</p>	 <p>삼다연 제주영글 제주 삼나무와 숙성한 후 발효차에 제주영글을 더한 블렌딩티 1.8g x 10ea 15,000원대</p>	 <p>동백운모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35,000원대</p>	 <p>에센셜밤 홍화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5g 40,000원대</p>	 <p>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80,000원대</p>
---	---	--	--	--	---	--	--	--

<p>고아 라인</p>  <p>고아크림 매서드™이 처진 피부에 탄력을 부여해 촉촉하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고보습 리프팅 크림 60ml 120,000원대</p>  <p>고아엠플에센스 매서드™과 마교 추출물이 피부를 윤곽하게 가꾸는 고평양 데일리 엠플 에센스 50ml 140,000원대</p>	<p>홀리스틱 케어</p>  <p>에센셜밤 천성과 홍삼이 혈행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피하는 홍삼 엠플 20g x 30 170,000원대</p>	<p>실란 컬렉션</p>  <p>실란 콤팩트 전통 인사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성 문양을 새기고 미세한 입자로 글고 맑은 피부로 표현하는 일촉 피부더 9g x 2 180,000원대</p>  <p>실란 립라택트 전통 인사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성 문양을 새기고 천연 유래 색소로 자연스러운 광택감을 주는 컬러택트 9g 180,000원대</p>  <p>퍼펙팅쿠션 인텐스 전통 인사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성 문양을 새기고 건강한 동안 윤기 피부로 표현해주는 인티에이징 쿠션 15g x 2 85,000원대</p>	<p>CRS키트(10월 한정)</p>  <p>윤조에센스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키트 '글락' 공예가 주재인 2018 설화 문화전을 기념해 윤조에센스와 파우치로 구성된 리미티드 키트 60ml 90,000원대</p>  <p>퍼펙팅쿠션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키트 '글락' 공예가 주재인 2018 설화 문화전을 기념해 퍼펙팅쿠션과 파우치로 구성된 리미티드 키트 15g x 2 65,000원대</p>
---	---	--	--



《Sulwhasoo》독자 선물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염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8p 독자 선물을 지면을 참조하세요.

뮤지컬 레전드 귀환하다 <지킬 앤 하이드>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지킬과 그를 사랑하는 두 여인의 비극을 담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2004년 국내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이후 이어진 공연도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2018년 공연도 초연 멤버 조승우의 합류로 예매 전쟁을 치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면성, 선과 악에 대한 고찰은 수많은 문학과 영화로 낳았다. 그중 가장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영국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 강렬한 음악과 만나 소설보다 더 유명해진 뮤지컬의 전설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킬 앤 하이드》의 시작을 함께한 조승우는 2004년 초연 당시 완벽한 연기과 가창력을 선보이며 단숨에 한국 뮤지컬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고 '지킬' 하면 배우 조승우를 떠올릴 정도로 뮤지컬계의 공식이 되어버렸다. 2018년 깊은 가을에 다시 찾아오는 《지킬 앤 하이드》 역시 조승우의 지킬을 만날 수 있어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 홍광호·박은태가 지킬을 연기하고, 비극적인 로맨스를 함께 그려 루시 역은 윤공주·아이비·해나가 맡았으며,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줄 엠마 역은 이정화와 윤경아가 캐스팅되어 다시 한번 한국 뮤지컬계의 기록을 써 내려갈 역사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시 2018년 11월 19일~2019년 5월 19일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1588-5212

전시 <루나파크 전: 더 디자인 아일랜드>



세계적인 거장 디자이너들이 꾸민 놀이동산처럼 유쾌한 디자인 전시다. 세계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총 디렉팅을 맡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100여 명이 동시에 참여한 역사적인 디자인 아이콘들을 대거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6일까지 장소 DDP 디자인 전시관 문의 02-6004-7720

전시 <Is It Tomorrow Yet?>



세계적인 브랜드와 매체가 주목하는 1992년생 아티스트 코코 카피탄의 전시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한다. 설치 작품부터 페인팅, 핸드드라이팅 작업 등 다양한 감정을 담은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2019년 1월 27일까지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70-8853-4284

공연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콘서트>



국내 최고, 독보적인 반도네오니스트 연주가 고상지가 이색적인 무대를 준비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그녀만의 스타일로 직접 편곡하고 바이올린, 하프시코드,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콰르테와 협연을 통해 완벽한 화음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9월 6일 장소 구리 아트홀 유채꽃 소극장 문의 031-550-8800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자음생에센스(5명)

농축된 인삼의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니스피어™가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입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관람권(2명)

국내 뮤지컬 기록을 갈아치우며 뮤지컬의 전설로 손꼽히는 <지킬 앤 하이드>의 관람권을 2명(1인 2매)께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8년 10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자음생에센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관람권
- 당첨자 발표 11/12월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8년 7/8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순행클렌징워터(5명)

- 김가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 김지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 안은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이은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조봉래 부산시 서구 망양로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관람권(3명)

- 김정은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 이선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 주영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018년 7/8월호 당첨자 선물은 9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가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잎까지 인삼에너지를 담아낸 캡슐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6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5.07.01~2024.09.0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설화지혜(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新 장인을 만나다(1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공간미감(2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진너다(2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한국의 멋(8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 스페셜(8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읽다(8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집 안 단장(9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9/10월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신라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한화 면세점	02-2136-2779
동화 면세점	02-399-3123
삼익 면세점	032-743-0543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